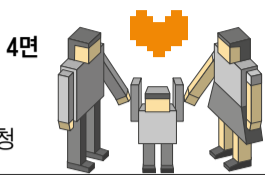




은퇴플랜 4면
저축금 먼저 쓰고
소셜 연금은 나중에 신청



학자금 8면
학비 마련 529 플랜 잔고는
다른 가족도 사용

결혼비용 14면
평균 결혼비용
2만 8,000달러

자동차 17면
자동차 페이먼트 못내
차량 압류 크게 늘어

교육 19면
자녀들 격려하고
경청하며 변화 주시



메디케어 파트 D 연 최대 2,000달러 자비 부담



Cover story

바이든 '인플레이션 완화법'(IRA) 발효
메디케어 처방전 약값 대폭 낮추고
고가의 약값 협상권 CMS에 부여
중고 전기차 4,000달러 택스 크레딧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2025년까지

미국인 특히 메디케어 가입 시니어들의 처방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기 자동차에 대한 7,500달러 택스 크레딧과 함께 중고 전기차 구입자도 4,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인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서 명했다. 이 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청정 에너지 산업 지원과 미국 보건 및 산업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의료비용과 전기차 세금 혜택이다.

우선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국민 건강보험

법(ACA)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조금 확대 정책이 3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바이든은 지난해 3월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의 재정 보조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이 지나면 지원 폭이 줄어들어 보험료 인상이 클 것으로 우려됐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3년간 현재의 확대 지원금이 계속 유지된다.

미국 은퇴자들의 처방전 약값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메디케어를 관리하는 '메디케어 & 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에 제작사와 직접 고가의 의약품 가격 협상을 승인했다. 거의 20년만에 내려진 대변화다.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인 파트D 가입자의 연간 자기 부담금을 2,000달러로 제한하고 인슐린 부담금도 한달 최대 35달러로 정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자동차 배기 가스 감소를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한다.

미국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각 제작사마다 수량을 제한해 최근 들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IRA 법은 이 제한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특히 중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다만 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 수입자에 한한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 조립된 차량이어야만 풀 크레딧을 받는다. 부분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원료의 40% 이상, 부품 50% 이상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국가 생산부품으로 미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제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고 전기 자동차는 외국산도 혜택을 받지만 자동차 가격은 2만 5,000달러 이하로 제한됐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학부모 'PLUS' 론도 대상

중·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금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여 논쟁 끝에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을 독자적인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행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개인 연소득 12만 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1만 달러의 연방보조 학자금 대출금을 조건 없이 탕감해 준다고 발표했다. 만약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지원금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된다.

자격은 올해 6월 30일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받은 학생에 한한다. 또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받은 연방 '학부모 플러스 론'(Parents Plus Loan)도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된 재학생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또 팬더믹으로 학자금 대출금 월상환 페이먼트가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약 2,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미 해당자 800만 명의 세금 보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늦어도 연말 이전부터 탕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4,40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고 총액만도 1조 7,000달러에 달한다.

24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칼럼

정대용 변호사	20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25
문화(8월의 시)	26
홍지는 기자의 웰빙이야기	29
김동희 칼럼	30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nleegallery.com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www.Seoulmedicalgroup.com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웰케어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엔성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브랜드 뉴데이 블루실드 에트나 헬스넷 스캔 얼라이언트 클레버케어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5년 연속 5스타 등급을 받은 한인 메디칼 그룹 중에서는 최고의 메디칼 그룹!

TEL 213.389.0077 • 800.611.9862

독자와 함께
 돌·결혼·동창회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사진 첨부 가능)
 contact@usmetronews.com

소셜 연금 먼저 받고 나중에 배우자 연금 추가

Q 남편은 67세로 아직 소셜시큐리티베니핏(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고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말하는 만기 은퇴 연령도 이 미지났다.

내 나이는 62세(1960년생)이다. 내가 그동안 쌓은 근로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spousal benefit)을 바꿔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이 내 소셜 연금보다 더 많다.

A 바꿔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질문하시는 분의 소셜 연금과 배우자 자격으로 받는 배우자 연금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가 정확한 답변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질문의 내용을 간추려보자. 남편과 부인이 모두 일을 해서 각각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인이 소액의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가 남편이 소셜 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은 부인이 남편의 근로기록으로 인한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계산된다.

다만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에만 해당한다. 이전 출생자는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 나중에 큰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하기 전이라면

소셜 연금의 배우자 연금은 일을 한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만 나머지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연금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소셜 연금을 먼저 받다가 상대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그의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둘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차액만큼 추가로 지불해 준다.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자동으로 추가 지불해 준다. 만약 자동 변경이 안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둘다 일한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했을 때 ‘Excess spousal benefit’으로 추가금 받아 만기 연령 이전에 신청하면 추가금 줄어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



질문에 대한 계 산법

편의상 질문자 를 영희 씨와 철수 씨로 부르자.

영희 씨는 62세로 10년 이상 일을 했으므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남편 철수 씨의 근로 기록에 따른 배우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의 질문처럼 영희 씨는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남편 철수 씨가 연금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연금 자격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한 경우는 철수 씨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영희 씨가 독자적으로 배우자 연금까지 한꺼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영희 씨는 자신의 근로 기록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 연금 추가 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연금 계산법을 ‘익세스 스파우절’(excess spousal) 베니핏 또는 ‘서프리트먼트 스파우절 베니핏’(supplemental spousal) 베니핏이라고 부른다.

익세스 스파우절 또는 서프리트먼트 스파우절 베니핏(Excess Spousal 또는 Supplemental Spousal Benefit)

일반적으로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

의 만기 은퇴 연령(FRA)에 받는 금액의 50%까지다. 만약 일찍 신청하면 그만큼 금액이 깎여 지불된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 연금 자격으로 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앞선 질문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적용해 예를 들어보자.

영희 씨가 62세에 자신의 연금을 신청했다. 영희 씨가 FRA(67세)에 신청할 때 받게 되는 ‘기초보험금’(PIA)을 80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월 600달러만 받을 수 있다.

‘800달러/0.75=600달러’ 여기서 0.75는 PIA의 75%를 말한다. 35%가 깎여 지불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남편 철수 씨가 FRA에 받는

‘기초보험지급금’(PIA)는 2,100달러라고 가정하자.

영희 씨가 FRA 67세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다면 철수 씨의 PIA 2,100달러의 절반인 1,050달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영희 씨는 FRA 때 배우자 연금 1,050달러 자격이 된다. 영희 씨가 FRA에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한다. 만약 배우자 연금이 동일하거나 적다면 영희 씨는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연금을 없다.

하지만 영희 씨의 배우자 연금은 1,050달러이고 영희 씨의 FRA PIA는 800달러다. 배우자 연금이 250달러 더 많다.

만약 남편 철수 씨가 연금을 신청하면 영희 씨는 배우자 연금 자격도

갖게 되므로 소셜시큐리티국은 영희 씨에게 차액 250달러를 더 지불해 준다. 그러면 영희 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의 600달러에 250달러가 추가된 850달러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다. 영희 씨 역시 FRA 67세가 지났어야 공식이 성립된다. 만약 남편 철수 씨가 영희 씨의 FRA 나이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면 영희 씨에게 추가 되는 배우자 연금 역시 줄어들어 지불된다.

또다른 케이스의 예

현재 62세인 순이 씨는 올해 소셜 연금을 신청해 700달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FRA)때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1,000달러다. 또 순이 씨가 FRA 때는 배우자 연금으로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다.

만약 순이 씨의 남편 길동 씨가 순이 씨 나이 67세(FRA 이후)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면 영희 씨는 배우자 연금으로 받을 돈이 없다. 순이 씨 FRA 소셜 연금과 배우자 연금 액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이 씨의 FRA 연금은 1,000달러이지만 배우자 연금은 1,2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역시 남편 길동 씨가 순이 씨 나이 67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으면 순이 씨는 2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순이 씨는 현재 받고 있는 연금 700달러에 배우자 연금 초과분 200달러를 더 가산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남편 길동 씨가 소셜 연금을 신청할 때 순이 씨의 나이가 FRA에 미치지 못했다면 초과분 역시 현재 나이에 따라 줄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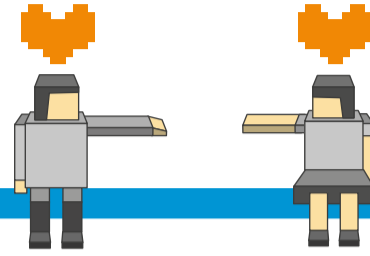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65세의 큰 선물!! **무료 상담**
 메디케어 신청, 모든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이정인 (213)503-1810
 (Jessica J. Kim) foxrainlady@gmail.com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D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플랜

은퇴플랜

저축금 먼저 쓰고 소셜 연금은 나중에 신청

저축



고물가 시대 노후 자금 운영 전략
70세까지 매년 8%씩 늘어 평생 지급
8%+COLA까지 2022년 엔 연 수입 13.6%
건강 좋다면 늦게 받는 것이 최고 전략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아직 소셜시큐리티베니핏(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은퇴자 또는 예비 은퇴자들의 고민이 생겼다.

소셜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탬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모아둔 은퇴저축플랜을 먼저 쓰고 소셜 연금을 나중에 받을 것인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병이 걸렸거나 재정적 압박이 심하지 않다면 소셜 연금을 최대한 늦추고 401(k)나 IRA와 같은 은퇴 저축 플랜을 먼저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소셜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늘어난다. 또 매년 8%씩 70세까지 붙어간다. 매우 큰 투자 이익이고 또 평생 마르지 않고 지불되는 '효자 중의 효자'다.

반면 은퇴 저축 플랜을 오래 둔다고 해도 매년 8% 수익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다가 평생 보존해 쓰기도 힘들다. 고갈되기 때문이다.

소셜 연금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70세까지 받지 않고 기다리면 77%가 붙어간다. 불과 8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 소셜 연금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이다.

소셜 연금을 일찍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기타 수입이 없거나 부족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면 당연히 일찍 신청해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일찍 받는 것만큼 연금액수도 줄어든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소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소셜시큐리티국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기금은 2035년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방 의회의 조치가 취해지겠

지만 이론적으로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다면 연금은 80%만 지급된다.

또다른 이유는 건강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찍 받는 연금과 늦게 받는 연금의 손익분기점을 대략 80.5세로 본다. 언제 받느냐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다소 상향되지만 일반적으로 80세 전후가 분기점이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아 80을 넘기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일찍 받는 것이 좋다.

은퇴플랜 사용하기

소셜 연금은 평생 지불되는 연방정부 보험이다. 나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늦게 받을수록 많아진다.

돈이 필요하다면 일단 저축금이나 은퇴플랜을 사용하고 소셜 연금은 가능하면 최대한 늦추어 받는다. 이를 '소셜시큐리티 브리지'(Social Security bridge) 전략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올해 62세다.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이다.

올해 연금을 신청한다면 만기 은퇴연령(FRA)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를 적게 받는다. 1960년생 이후 출생자의 FRA는 67세다. 그런데

70세까지 기다린다면 24%가 추가된다.

만약 FRA에 받는 소셜 연금(기초 보험금) 즉, PIA가 2,000달러라면 62세에는 월 600달러가 깎인 금액 1,400달러를 평생 받지만 70세에 신청하면 480달러가 추가돼 2,480달러를 받는다. 62세보다 880달러(77%)를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셜 연금을 최대한 늦추고 다른 은퇴 저축부터 사용하라는 것이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3분의 1이 이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알리시아 먼넬, 겔 웨스타인 연구원은 은퇴 저축금을 25만달러 내외로 가지고 있다면 우선 은퇴 플랜 저축금을 소셜 연금처럼 매달 찾아 쓰고 소셜 연금을 최대한 늦추라고 조언했다.

많은 직장 401(k) 은퇴 플랜이 이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소셜 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401(k)에서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투자회사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401(k) 가입자는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는 중산층 수입자들이다. 따라서 이 소셜시큐리티 브리지 전략은 이들에 매우 좋은 옵션이라고 연구소는 조언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소셜 연금 기다리기 전략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일부 은퇴자 또는 예비 은퇴자에게는 401(k)를 일찍 찾아 쓴다는 말 자체가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저축 플랜은 가능하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불려 나가는 것이 노후를 위한 훌륭한 대책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은퇴 저축 역시 늦게 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공식이 성립된다.

그러나 401(k) 저축금은 언젠가는 고갈 된다. 하지만 소셜 연금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연방정부의 최고 은퇴 수입이다. 죽을 때까지, 인플레이션만큼 매년 올라 지급되는 '효자'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선 은퇴저축플랜을 먼저 사용하고 소셜 연금을 최대한 늦춰 받는 것이 좋다고 강력 추천한다.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매년 8%씩 70세까지 붙어간다. 8% 투자 수익은 매우 높은 수익률이다. 은퇴 저축 플랜의 수익률 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높다. 또 투자 상품을 고르느라 고민하지 않아도 매년 8%씩 척척이자가 붙는다.

특히 소셜 연금은 은퇴저축플랜처럼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 현재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연방의회가 만기 은퇴 연령을 상향하거나 소셜 세금을 올리는 방법등을 강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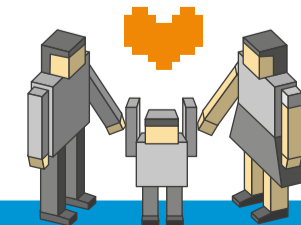
앞서 설명한대로 소셜 연금은 매년 7~8% 늘어난다. 요즘 이것만큼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 상품은 흔치 않다.

그런데 미국인 남성 5%, 여성 7%만이 70세까지 소셜 연금 신청을 미루고 있다. 또 남성 35%, 여성 40%는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자. 1954년생이 70세까지 늦추어 연금을 신청한다. 연금액은 매년 '생활비조정률'(COLA)에 따라 조금씩 올라간다. 2020년 COLA는 1.6%였다. 따라서 2020년 연금은 연 8%+1.6%= 9.6% 올랐다. 또 올해 COLA는 5.6%다. 따라서 올해 소셜 연금은 전년에 비해 13.6% 올라갔다(8%+5.6%).

상당한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은퇴 저축플랜에 묶어 둔 연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연금

원문상: 우재원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파트 A(병원), 파트 B(진료)가 기본 골격 여기에 기타 혜택 추가돼 파트 C 탄생
파트 B 월 기본 보험료 170.10달러 내야
40 크레딧 있다면 불체자도 혜택

Q 조만간 메디케어 신청나이가 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라고 한다. 또 20%의 진료비는 내가 내야 하는데 그러면 의료비 부담이 클 것 같다.

A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우선 메디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보험료를 내야하고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 있다. 또 코페이와 코인슈런스 등 메디케어와 가입자가 함께 지불해야 하는 공동 부담금도 있다. 만약 수입이 낮거나 없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메디칼)에서 보험료와 부담금을 지불해 준다.

▲또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앞서 말한 자기 부담금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모두 지불해주는 메디케어 이외의 보충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미국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 만약 5년 연속 거주하지 않은 신규 영주권자는 전국민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합법 신분에서 불법 체류로 바뀌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40 크레딧이 있다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트 C는 자격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루게릭 병을 앓고 있거나 말기 신장 질환(ESRD), 또는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았다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65세가 됐다고 해서 꼭 메디케어

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직장을 떠나 보험이 끊겼다면 끊긴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를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 개념이다.

연방정부는 자격이 되는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병원비를 조달해 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 혜택을 주는 파트 B를 제공한다. 이 파트 A와 파트 B가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이며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낸(10년 이상) 자격 있는 미국인들에게 주는 건강보험이다. 이를 전통 메디케어(traditional medicare)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라고 부른다. 주치의를 정할 필요가 없고 미국내 어느곳에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한인들 사이에는 편하게 PPO라고도 불리는데 PPO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보험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려면 처방전 플랜 파트 D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 자기 부담금이 높다. 특히 파트 B의 진료비는 80%만 커버해 준다. 나머지 20%는 가입자 부담이다.

이 가입자 부담을 내지 않으려면 '메디갭' 이라고 부르는 '보충보험'(supplement plan)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대안으로 고안된 '어드밴티지 플랜'(advantage plan)을 선택하면 된다.

간단히 파트 C라고도 부르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파트 A, 파트 B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D 혜택도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치의를 선택해야 하고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주치의가 속한 의료 네트워크(서울 메디컬 그룹과 같은 메디컬 그룹)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파트 C는 연방정부가 관할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은 미국내 건강보험 회사들이 연방정부 지침을 중심으로 만든 메디케어 건강보험이다.

다만 주치의가 소속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 전국을 자주 다니며 연중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요즘 미국인 절반 가량이 가격 부담이 심한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는 안경, 치과, 보청기, 침술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C에 가입한다.

보험료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해서 공짜로 보험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앞서 설명한대로 기본 골격 중 하

나인 파트 A(병원)는 10년이상 근로 기록 40 크레딧(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록)이 넘는다면 공짜로 제공된다. 그동안 낸 세금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근로기록은 배우자의 것을 사용해도 된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40 크레딧 이상을 가졌다면 다른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는 말이다 하지만 근로 기록이 부족하다면 크레딧 점수에 따라 최대 499달러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또 메디케어 골격 중 하나인 파트 B(의사 진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받는다. 개인 수입 9만 1,000달러, 부부 18만 2,000달러 이하는 170.10달러의 표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보험료는 개인 50만달러 이상, 부부 75만달러 이상까지 5개 수입 등급으로 나뉘어 최대 578.30달러로 높아진다.

만약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한다면 약값을 커버해주는 파트 D(처방전)가 필요한데 이 또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건강보험 회사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플랜의 혜택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적게는 20여달러

에서 많게는 16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참고로 전국 평균 파트 D 보험료는 올해 33.31달러다.

파트 D 역시 수입에 따라 과태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 개인 50만달러 이상 수입자가 100달러 보험료의 파트 D 보험에 가입한다면 100달러와 함께 고소득자에 물리는 추가 보험료 77.90달러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한달 177.90달러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파트 C 주치의의 플랜에 가입한다고 해도 파트 B 보험료는 반드시 내야 한다.

파트 C 가입 자격은 파트 A와 파트 B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면 파트 C 역시 자동 자격을 상실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트 A와 B 그리고 처방전 파트 D 까지 포함된 파트 C 플랜에 가입했다고 해도 수입이 많다면 파트 D 과태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앞서 예와는 달리 파트 D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파트 D 과태료는 보험사에 지불해야 한다.

자넷킴 기자 janet@usmetronews.com

곧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나요? 시니어 보험전문인 홍은주가 도와 드립니다.

- HMO (어드밴티지 플랜, 약보험 포함)
- 보조보험(서플리먼트 플랜-PPO)
- PDP (처방약 보험)

그 외에 플랜에 따라 엑스트라 베네핏(덴탈, 한방, 안경, 피트니스, 차량서비스) 제공됩니다.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Extra Help에 자격이 되시는 분께는 저렴한 처방약 보험을 알려드립니다.

홍은주 (Eun-Joo Powell) 시니어보험 전문인 (CA Lic #0L06761) • ej@epi-digm.com • (909) 576-3236

코비드

“한번 검사에 음성 나왔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코비드 즉석 검사기 반복해야
48시간 간격으로 2~3차례 검사
최근 변종 BA.5는 검출 늦어
의심되면 외출 삼가, 자가격리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즉석 코비드 19 항원테스트기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확신하면 안된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즉석 자가 검사는 코비드 19를 정확하고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증상 발현 후 첫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확신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연방식품의약국(FDA)는 지난주 첫번째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 검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 항원 코비드 19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 이 나왔다면 정확한 결과”라면서 “그러나 음성 결과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FDA는 코비드 19 증상과 관계없이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반복 검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잘못된 음성 결과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5에서 더 많다. 따라서 추가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US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장 랄프 곤자레스 박사는 최근 캠퍼스 타운홀 미팅에서 첫 음성 결과가 나온 후 24~48시간 이내에 재 검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대학의 감염병 전문의 피트 친-훙은 어떤 사람은 증상 발현 후 4~5일이 지나서야 즉석테스트기로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요즘 때론 흔한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FDA에 따르면 집에서 검사하는 즉석 테스트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80% 이상 감지한다. 반대로 실험실에서 하는 PCR 검사는 일반적으로 95% 검출된다.

하지만 즉석 테스트는 15분이지만 PCR 테스트는 보통 하루 또는 그 이상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있는데 즉석 테스트로 음성이 나왔다면 48시간 후 재검사를 하라고 FDA는 조언했다.

두번째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코비드 증상이 계속된다면 3번째 검사

를 하거나 PCR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FDA는 아울러 말했다.

FDA는 성명서를 통해 “코비드 증상이 없을 때는 특히 2~3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복 검사 이유는

이렇게 여러 차례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된다.

오미크론 하위 변종들은 보통 목에서부터 감염이 시작된다. 다시말해 코까지 올라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친-훙 박사는 목은 아픈데 코 속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검사한다면 아직 바이러스가 코까지 올라오지 않아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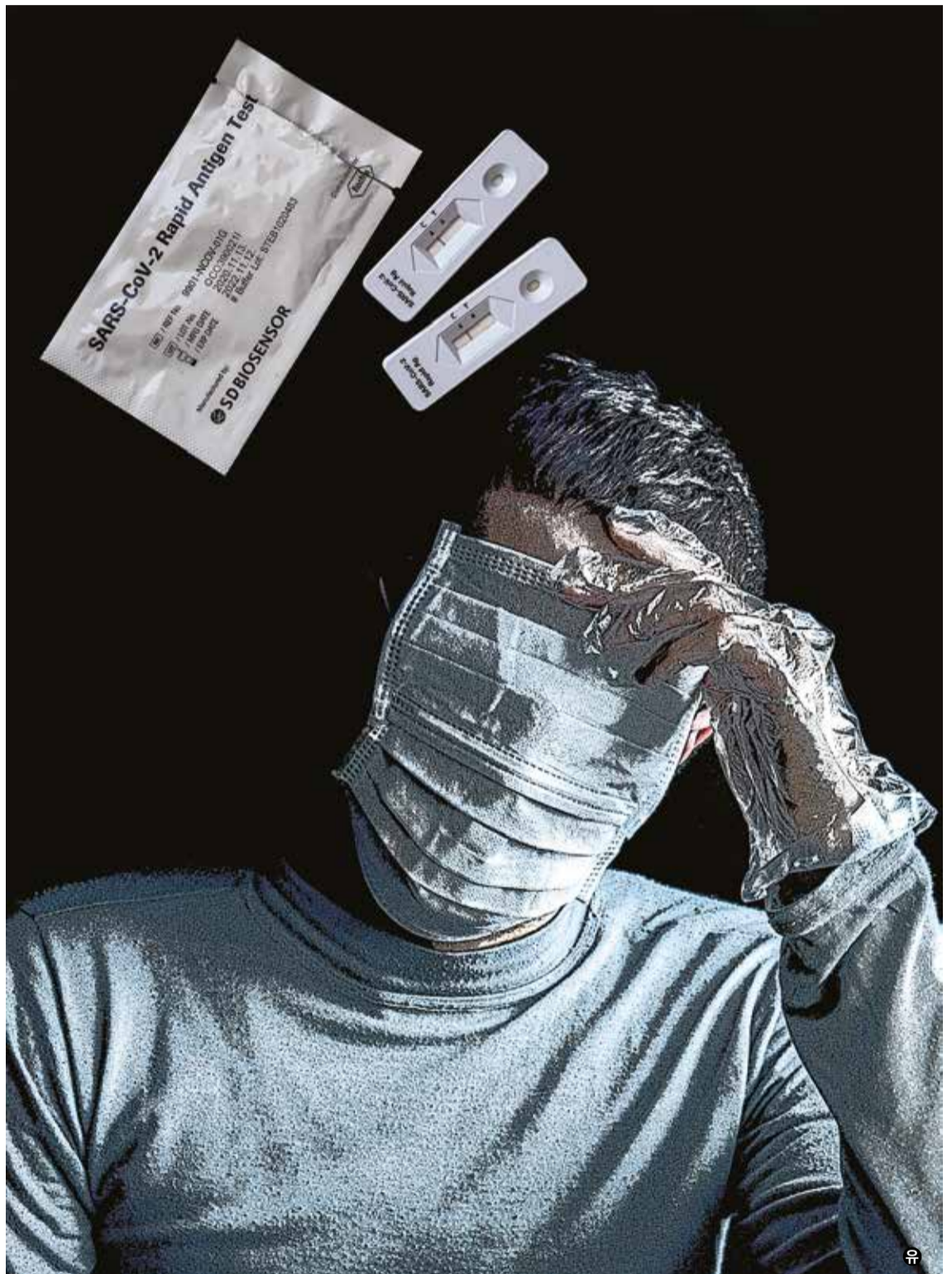
또다른 이유로는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빠르게 감지해 병원과 싸우는 초기에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데 이때 면역체계와 병원균이 싸우면서 증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즉석 테스트기가 감지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아직 퍼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백신이 나오기 이전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면역 반응을 보이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친-훙 전문의는 그러나 “백신 접종과 부스터 샷을 맞은 사람은 적을 탐지할 수 있는 면역 세포를 이미 가지고 있어 감염되면 훨씬 더 빠르게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다”면서 “면역 시스템이 ‘뭔가 들어왔어’ 라고 반응하며 아픈 느낌(증상)이 시작되는데 아직 충분한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의 신체는 코비드 19이 침입했다는 경보를 빠르



게 발령할 수 있지만 아직 즉석 검사기로 검출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증상 있다면 외출 금지

하지만 이유와 관계없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삼가하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장 바바라 페리는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비드에 감염된 듯한 증상을 느낀다면 제발, 제발, 제발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라”고 강조했다

다. 그는 또 “즉석 검사기가 매우 신빙성이 높지만 음성이 나왔다면 반복 검사하거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CR검사서 음성 이 나왔는데 증상은 계속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그는 밝혔다.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코비드 증상은 없지만 감염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면 FDA는 최소 3차례 즉석 테스트를 48시간 간격으로 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불안하다면 48시간 후 또다시 검사하거나

PCR 검사를 받으라고 아울러 권고했다.

어떤 사람은 오전 10시에 검사하고 오후 2시에 또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염 여부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며 24~48시간 기다린 후 재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단 검사는 코비드 19 퇴치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는 즉석 항원 검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코비드 19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자넷김 기자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어르신들의 건강 수비수!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을 알려드립니다.

확실한 건강 수비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지켜드립니다.

잘 지켜온 건강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갑자기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확실한 수비 하나로 많은 경기를 이긴 것처럼
서울 메디칼 그룹의 훌륭한 주치의 선생님들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진료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법 (주기적인 건강 체크)

<p>주기적인 혈압 체크</p>	<p>퇴행성 질환 관리하기</p>	<p>치아 및 눈 건강 관리하기</p>	<p>혈당 및 콜레스테롤 체크</p>	<p>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암 검진</p>
-----------------------	------------------------	-------------------------------	------------------------------	---------------------------------

※ 나에게 맞는 헬스 플랜을 건강보험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주치의를 선택하신 후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년 연속 5스타 등급을 받은 한인 메디칼 그룹 중에서는 최고의 메디칼 그룹!

TEL 213.389.0077 • 800.611.9862

웰케어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엔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브랜드 뉴데이	블루월드	에트나
헬스넷	스캔	얼라이언트	클레버케어

학자금

학비 마련 529 플랜 잔고는 다른 가족도 사용



istock

학자금 대출 최대 1만달러까지 변제 장기간 보관했다가 학비로 사용 가능 세금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운영 조부모가 개설하면 FAFSA 영향 없어

대학 학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팬데믹 직전까지 지난 10년 대학 등록금 상승 속도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훨씬 능가할 정도다.

학자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녀들의 학비를 준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비 저축 529 플랜(529 college saving plan 또는 529 plan)이다.

529플랜은 '로스' 은퇴 플랜처럼 대학 학비로 사용하면 들어오는 이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구조를 말한다. 지정된 수혜자의 대학 학비는 물론이고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등록금과 졸업 후 견습 프로그램, 용자받은 학자금 상환금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쓰다 남은 잔고는 형제, 자매의 학비로 쓸 수 있다.

특히 학생 본인이나 부모 이외에 조부모나 제3자가 개설해 준 529 플랜은 대학 학자금 신청서 FAFSA에 재산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학자금 보조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조부모의 손주 학자금 지원에 최적 플랜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529플랜에 적립된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

거나 공부를 잘해 풀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일찍 졸업하는 등등의 경우다.

사용 용도

529 플랜은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꼭 대학 학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학교, 또는 기타 전문학교 등 미국 교육부의 학점 인가 교육 기구에 등록된 모든 교육기관의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등록금이나 교과서, 학용품, 수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자격 있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도 사용한다. 한학기 최저 수강학점의 절반 이상의 수업에 등록하면 학교에서 정한 기준까지의 기숙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공립, 사립, 종교학교의 등록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 최대 1만 달러까지다.

학자금 대출금 갚기

2019년 연방 의회의 '은퇴안정법'(SECURE Act)에 따라 529 플랜의 지정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형제 자매의 학자금 대출금 최대 1만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 1만 달러는 각 형제 자매당 1만 달러씩이므로 혜택이 매우 크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금 상

환 1만달러는 택스 보고때 학자금 이자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미래의 교육비 사용

대부분의 세금 유예 저축 플랜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세금 유예 IRA는 72세부터 최소 배분금(RMD)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529 플랜은 적립금에 대해 연방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주는 적립금을 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따라서 529 플랜은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적립금은 장기간 면세 혜택을 누리며 복리로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또는 중퇴했다가 다시 입학 또는 복학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 진학때도 사용 가능하다.

다른 가족으로 수혜자 바꾸기

수혜자의 이름을 연방이나 주 소득세 벌금 없이 바꿀 수 있다. 원래 이름이 올라 있는 수혜자의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조카, 처남, 처제, 고모, 이모, 삼촌, 4촌까지도 가능하다. 또 어카운트 소유주(주로 부모 또는 조부모)는 어카운트를 수혜자의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로 수혜자 이름을 넘겨줄 수도 있다.

대를 이어 학자금 조달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격 있는 학비로 사용하면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는 모두 면세다.

또 529 플랜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장애인을 위한 'ABLE' 어카운트로 모든 적립금을 이체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ABLE' 어카운트는 연 적립금 한계가 있다. 현재는 연 1만6,000 달러까지다. 따라서 529 플랜 이체금도 이 적립금 한계에 포함된다.

세금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529 플랜 적립금을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교육 목적 이외의 금액은 소득세 대상이고 10% 벌금을 낸다. 그러나 소득세와 벌금은 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만 적용되므로 세 부담도 크지 않다.

실제 세금도 크지 않을 것이고 수혜자의 수입이 많지 않다면 최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또 10% 벌금 역시 수혜자가 면세 대상의 장학금을 받는다면 철회될 수도 있다.

문제 피하기

대학 학비 저축은 매우 예측하기 힘들다. 사립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학비가 저렴한 공립대학을 갈 것인가에 따라 필요한 학자금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얼마의 학자금이 어느정도 필요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학자금 준비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모의 부담도 적다. 또 요즘은 조부모들의 손주들을 위해 이 플랜을 개설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설명한대로 조부모가 개설하는 529 플랜은 대학 재정 지원 서류에 포함되지도 않아 재정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손주들에게 현금을 용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529 플랜을 개설해 손주

들을 수혜자 이름으로 지정해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두는 것도 좋다.

조부모들이 은퇴 플랜의 분배금을 손주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금 유예 플랜의 분배금을 받는다면 일단 세금을 낸 후 순분배금으로 529 플랜에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불어오는 이자 수익은 로스 어카운트 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설하기

각 주마다 주정부 보증 529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ScholarShare529' (5스타, 주 세금 공제 안됨), 일리노이는 'BrightStart' (5스타, 주 세금 공제 연 2만달러) 또는 'College Illinois' (3스타), 워싱턴은 'Dream Ahead' (4스타, 세금 공제 없음), 뉴욕 'NYS529' (5스타, 세금공제 1만달러) 등등 다양하다.

각 웹사이트에서 플랜을 개설하면 된다. 소유주 정보와 수혜자 정보, 적립 방법 등을 선택하고 투자 종목도 함께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15분 정도 소요된다.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는 'scholarshare525.com' 이다. 현재 유타주와 아칸소주 529 플랜이 가장 실적이 좋다. 꼭 거주 주의 플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 실적이 좋은 플랜을 골라 선택할 수 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메디케어 플랜 선택은 건강, 재정, 약 등 고려

폴선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플래너

“혜택 다양하므로 자신에 맞는 플랜 찾아야”

폴선 씨는 십수년간 한인사회 메디케어 플래너로 활동해온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가다. 다양한 케이스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그만의 노하우를 간직해 메디케어 관련 어려운 질문도 손쉽게 풀어낸다.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연중 메디케어 플랜 변경일을 앞두고 폴선 씨를 만나 도움말을 청했다.

폴선 전문플래너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제일 좋은 플랜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한인이나 기존 가입자 모두가 원하는 것은 제일 좋은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혜택이 좋은 플

랜이나 보험회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인이 복용하는 약, 재정 상태, 건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폴선 플래너에 따르면 한인들이 요즘 많이 찾는 파트 C 즉, 어드밴티지 플랜은 각 제품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매달내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일부 환불해 주는 플랜도 있다. 또 어떤 플랜은 치과 치료를 도와주기도 한다. 골프비를 현금 보조해주기도 하고 한방 치료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랜도 있다. 당뇨병과 심장병 환자라면 이에 특화된 플랜에 가입해 집중 관리와 약품 혜택을 더 받을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플래너 폴선씨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 있다.

특히 연방정부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치과 등의 추가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 처방전 약품을 커버해주는 파트 D도 별도로 구입해야 하고 의료

진료비의 80%만 커버해 주므로 나머지 20%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메디캡이라고 불리는 보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한인들이 이들 보험료 부담이 적은 메디케어 파트 C(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파트 D, 일부 메디캡과 치과 등 부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LA,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트라 카운티 등에서 판매되는 많은 MAPD HMO 플랜은 별도 보험료를 받지 않는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메디케어의 기본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자신이 현재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폴선 플래너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플랜을 비교 선택한다면 가장 좋은 플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플래너 폴선 (213)503-6897.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폴선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가

폴선이 지난 10여 년간 엘에이,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 등에 거주하시는 약 3,900명 시니어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으로(더 많은 분들을 도와 드리고자)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모든 메디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폴선
CA Lic.#OF44756

자넷(영희) 전
CA Lic.#OH49868

에서 **폴선 보험** 을 검색하세요.

중앙일보 메디케어 건강보험 칼럼 리스트

- 처음에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이나,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 파트 B 보험료를 환불 받으시겠습니까?**
- 직장 보험에서 나오신 분, 거주지가 바뀐 분, **적합한 플랜을 받으시겠습니까?**
- 당뇨, 고혈압 질환을 위한 **SNP 플랜(특별 프로그램)**
-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 **더 많은 혜택 플랜**
- 치과 치료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 한방 침술을 무제한으로 받으시겠습니까?
-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비 보조를 받으시겠습니까?

파트 B, 보험료 상당 부분을 환불받을 수도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폴선보험 (213)503-6897 / (323)767-6872

올림픽&알바라도 (구)월서은행 5층 510호
2140 W. Olympic Blvd. #510, LA, CA 90006

Cover story

메디케어, 고가 의약품 가격 협상 가능

**파트 D 보험료 인상 연 6%로 제한
대상 포진 등 백신 코페이 없애
독신 수입 2만달러 이하도 약값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처방전 가격 인하와 자기 부담금(Out of pocket cost)이 재정되는 등 거의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매리 존슨 ‘시니어 시티즌 리그’ 소셜시큐리티 정책 연구원은 “메디케어 수혜자 대다수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신탁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6,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메디케어에 등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의 6,300만 명에서 늘어났다.

비싼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

메디케어 사무국의 고가 약품 가격 협상이 허용되면서 500~70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낮아진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고 약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2026년부터 ‘메디케어&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는 직접 제약 회사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부 고가의 처방전 약품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IRA법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약값이 연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정부에 가격 할인을 주도했다. 이로 인한 약값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 건강보험 문제 연구 재단인 ‘커먼웰스 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처방전 약값은 메디케어 환자 의료 비용 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FF)의 트리시아 뉴먼 수석 부사장은 “약값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최근 줌 미팅을 통해 밝혔다.

첫 협상 목표는 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장 비싼 약 10종류다. 다만 미국 보건후생부는 아직 약품 명단을 최종 확정 하지 못했다.

또 2027년에는 파트 D 약품 15개가 추가되고, 2028년은 파트 B와 파트 D 약품 15개가 더 협상 대상에 오른다. 2029년 이후에는 20개 파트 B와 파트 D 약품이 추가된다.

자기 부담금(out of pocket) 한계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전 약품의 최대 부담금을 1년 2,000달러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5,0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약값이 최근 급속히 올라가는 추세지만 더 이상의 환자 부담을 제한하는 조치다. 앞서 CMS의 고가 약품 가격 협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KFF 분석에 따르면 고가의 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해 연 2,000달러 이상의 약값을 지불하는 메디케어 환자 140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존슨 부사장은 “처방전 약값의 상승은 은퇴자들의 가장 빠른 지출비 목록 중 하나”라면서 “현재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에게 매우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영향

지난 2022년 3월부터 설문을 실시



한 KFF에 따르면 성인 51%는 지난해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뤘다고 밝혔고 성인 83%는 처방전 비용이 지나치다고 답했다. 또 26%는 약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트 D 보험료는 2024~2029년 연 최대 6% 인상으로 제한된다. 또 2024년부터 IRA법은 메디케어 파트 D의 ‘재난 단계’(catastrophic stage, 연간 약값 지불이 많은 경우)의 5% 코인슈런스를 아예 없앤다.

약값 지불이 ‘재난 단계’에 진입하는 사람은 현재 약값의 5% 코인

슈런스 또는 3달러 95센트(제네릭)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이 5%를 완전히 없애고 실비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슐린 가격 제한

당료를 앓고 있는 은퇴자들은 최근 수년간 인슐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국 주로는 처음으로 저렴한 인슐린 생산을 공헌하고 있다.

이 인슐린 가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내년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330만 명이 혜택을 본다. 월 인슐린 가격은 35달러로 제한한다.

저소득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메디케어 파트 D 인슐린 사용자는 2020년 평균 월 54달러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했다. 지난 2007년 38.85달러보다 39%나 증가했다.

2020년 판매되는 모든 인슐린 제품 가운데 가입자의 월 처방전 자기 부담 지불금은 적게는 16달러에서 많게는 116달러까지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의 인슐린 자기 부담금 총액은 2007년 2,360만 달러에서 2022년 1억3,000만 달러로 급상승했다.

한편 인슐린을 복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같은 기간 중 160만명에서 330만 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무료 백신

2023년부터 시니어는 메디케어 파트 D와 메디케어의 ‘면역실행자문위원회’(ACIP)가 권하는 성인 백신 접종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독감부터 폐렴, 대상포진 등이 포함된다. 미국 주 절반은 이 분담금을 대신 지불해주지만 일부 주에서는 분담금을 주지 않는다.

저소득 보조금

이번 IRA법은 또 저소득 층을 위한 의약품 보조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의 자격을 확대 한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 D 월 보험료와 연간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지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들으며

‘고인이 고개를 끄덕 일만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flulove@yahoo.com



전기차 세단 5만 5천달러 이하 7,500달러 택스 크레딧

**개인 수입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 자적
전기차 2만 5,000이하 4,000달러 세금 혜택
미국 생산 조립 자동차, 배터리 자격 제한**

IRA는 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각 제작 회사 별로 혜택 대수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 한계가 모두 없어졌다.

또 중고차도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독신 15만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택스 크레딧을 받는 자동차의 가격도 한정돼 있다. 또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국도 택스 크레딧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7,500달러 택스 크레딧을 모두 받으려면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 조립됐어야 한다. 이 생산 조립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연방 에너지부는 이규정에 맞는 자동차는 약 20여 종류라고 평가했다.

가격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세단은 가격 5만 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트럭과 밴, 스포츠 유틸리티(SUV)는 8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중고 자동차는 2만 5,000달러까지이지만 미국에서 제

작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요구사항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다. 그런데 이 배터리도 생산지에 따라 택스 크레딧이 제한된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질의 일정 비율이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공급돼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 상당 부분은 북미에서 제작 또는 조립돼야 한다. 매우 혼돈되는 부분이다.

미국에는 광물 채취 광산이 없어 주요 원자재의 정제를 중국에서 90% 담당한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이번 택스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배터리 규정이 시행되면 시중의 전기 자동차 중 풀 택스 크레딧 7,500달러를 받는 자동차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부분적 택스 크레딧

부분적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다.

EV 배터리 원자재 광물질의 40%

가 미국 또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왔다면 부분 크레딧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750달러는 배터리의 다른 부품에 적용된다. 2023년부터 부품의 50%는 미국에서 생산 또는 조립돼야 한다.

‘리비안’ 과 같은 고급 전기 자동차 회사의 제품은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해 고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GM 같은 회사는 미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며 이미 배터리 부품 공급 체계를 미국 기준으로 바꾸고 있어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요타와 현대 같은 회사는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목표는 중국이다. 중국은 배터리 필수 광물의 4분의 3을 생산정제한다. 따라서 과거 반세기동안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중동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향후 50년간 전기 배터리 제작과 생산은 아시아 국가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겨냥한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등 메디케어와 관련된 비용을 도와준다.

2024년을 시작으로 전액 보조 받는 ‘엑스트라 헬프’의 수입 자격은 연방 빈곤선 135%에서 150%로 상향한다.

올해 독신자는 연 2만 달러까지, 부부 2만 7,000달러까지의 수입이 면 가능하다.

현재 약 50만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가 빈곤선 135~150%로 부분 보조를 받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이들은 기타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려

새 법의 혜택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보스턴 칼리지 은퇴 연구센터의 매슈 러틀리지 연구원은 “은퇴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인 것만은 틀림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일부에게는 특히 의약품 가격에서는 훨씬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가지 우려는 보험사와 제약사, 의료 제공업체들이 다른 약이나 서비스 비용을 올리거나 파트 D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케어 및 소셜 시큐리티 전문가 필립 몰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메디케어의 협상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조항들은 수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소수의 약품에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개인 종업원 건강보험은 새 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제약회사들이 메디케어 플랜에서 줄어든 수익을 대신 직장 플랜의 가격 인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2025년까지 연장

지난 2021년 ‘미국구조플랜’(ARP)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법(ACA)의 보조금을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보조금은 올 연말로 끝난다.

하지만 IRA는 이를 3년 연장해 2025년까지 늘렸다. 보조금 확대

정책이 끝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를 일단은 진정시켜 준 것이다.

이전 까지만 해도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가입자는 연방빈곤선 400% 이하만 보조금을 받았다. 이를 ‘보조금 절벽’(subsidy cliff)라고 부르는데 이 보조금 절벽이

2025년까지 사라지고 가족 수입이 최대 8.5%까지만 보험료로 지불하도록 한다. 또 연방 빈곤선 150%의 수입 가정은 보험료가 ‘0’다.

특히 저소득 영주권자는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WINDSOR REALTY
kenparkscore@gmail.com

박건우(KEN PARK)
Realtor/Property Manager
Cell: (213)500-5479
Fax: (323)933-1601

Lic#01019114
BUSINESS · COMMERCIAL · RESIDENTIAL 4465 Wilshire Bl., Suite 101, LA, CA 90010

부동산

집값의 1% 선금 내면 이자율 0.25% 줄일 수 있어

모기지 포인트로 이자율 낮추기

부동산 매매 주춤하면서 다시 주목
장기 주택 소유할 때 유용한 전략
변동 이자율도 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
15년 고정 이자율 낮지만 상환금은 커져
크레딧 점수 관리도 이자율에 중요

집을 살 때 월 페이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이자율이다. 요즘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집 페이먼트가 늘어나 바이어들의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전략을 잘 세우면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낮은 이자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옵션이 ‘모기지 포인트’(mortgage point)다. 모기지 포인트는 낮은 이자율을 구입하게 위해 내는 선불이다. 돈을 주고 낮은 이자율을 사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고 크레딧 점수를 높여도 좋은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다. 또 대출 상환 기간이 짧은 변동 이자율도 요즘같이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을 정리했다.

모기지 포인트(mortgage point)

모기지란 사고 싶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구입비용을 빌리는 돈을 말한다. 빌린 모기지를 다 갚을 때까지 주택은 은행이 담보로 잡게 된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면 은행은 담보권을 넘겨준다. 그러면 그 주택은 100% 구입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모기지 포인트’다.

모기지 포인트는 대출 금액의 1%를 말한다. 모기지 포인트 1%마다 이자율은 0.25% 내려간다. 2모기지 포인트, 즉 2%라면 이자율은 0.5% 더 낮아질 수 있다. 절반의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예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하지 않고 원래 대출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을 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 모기지 신청자가 많아지면 대출 은행은 구태여 신청자에게 모기지 포인트라는

옵션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한다면 1%포인트마다 5,000달러를 선금으로 낸다. 그러면 이자율을 0.25% 낮출 수 있다.

만약 구입하는 주택을 7년 이상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해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도 좋다.

그러나 2~3년 후에 되팔 집이라면 구태여 돈을 쥐가면서까지 낮은 이자율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즘같이 이자율이 올라가고 주택 판매와 가격 상승이 완만해지는 시기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추려는 바이어와 주택 구입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대출 은행 모두 모기지 포인트를 좋은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매체 ‘인사이드 모기지 파이낸스’의 가이 세칼라 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대출 은행들이 모기지 포인트를 제시하지 않아도 모기지 신청자들이 줄을 섰지만 지금은 신청자도 줄고 경쟁도 심해져 모기지 포인트를 제시하는 은행이 많아졌다”면서 “바이어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기지 포인트 사야 하나

구입하는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모기지 포인트 구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통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하는 비용을 낮은 페이먼트로 상쇄하는 기간을 ‘블랙 이븐 포인트’ 즉 본전을 찾는 기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 주택을 30년 고정 이자율로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자율이 6%라고 가정하고 2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한다면 이자율은 5.5%다.

2 모기지 포인트는 주택 가격의 2%이므로 8,000달러를 내면 이자율을 0.5% 낮출 수 있다. 이런 경우 낮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 모기지 포인트로 구입한 8,000달러를 찾으려면 약 5.2년이 걸린다.

만약 10년이 지나면 오히려 낮은 페이먼트 때문에 7,000달러의 이득을 보게 된다.

세금 공제

모기지 포인트를 구입한 돈은 세금 공제 대상이다. IRS는 모기지 이자율과 함께 세금 공제를 해준다. 물론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단 주거주택이어야 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모기지 포인트가 이자율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대출의 종류, 대출 은행, 개인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크레딧 점수가 나쁘고 다운페이먼트도 20%를 넘지 못한다면 포인트를 받기 위한 우량 신청자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쇼핑을 하고 잘 비교해 봐야 한다.

모기지 이자율 줄이기

꼭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 모기지 포인트 구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집을 오래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을 낮추는 옵션은 또 있다. 연방 모기지 은행은 요즘 평균 30년 고정 이자율은 최근 13년 만에 가장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른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변동 이자율

변동 이자율(adjustable-rate mortgage·ARM)은 단기 주택 소유자에게 매우 좋은 옵션이다. 일정기간 동안 낮은 이자율을 받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자율

이 시세에 따라 올라가는 대출이다. 30년이나 15년 이자율보다 낮아 페이먼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단 약속된 5년 또는 7년이 끝나면 다시 채용자를 하거나 현 은행 시세에 따라 매년 이자율이 바뀐다. 당연히 페이먼트가 크게 뛰어오를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변동 이자율 모기지가 ‘5/1 ARM’이다. 5년간은 매우 낮은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고 5년이 지나면 앞으로 2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7/1 또는 10/1도 있다. 또 고정 기간이 끝나면 매 6개월마다 바뀌는 ARM도 있다.

지난 10년간 30년 고정 이자율과 5/1 ARM의 차이는 평균 0.7%포인트였다. 3.8% 대 3.1%다.

15년 모기지

30년이 아니라 15년 동안 고정 이자율로 모기지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자율은 낮아지지만 상환 기간이 짧아 페이먼트는 늘어난다.

둘의 차이 역시 지난 10년간 평균 0.7%포인트다. 현재 이자율로 40만 달러 주택을 30년 고정으로 구입한다면 15년 모기지보다 이자 지출이 40%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22만 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대출 금액이 커지면 15년 모기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페이먼트가 커져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 점수 높이기

좋은 이자율을 받으려면 크레딧 점수가 높아야 한다. 크레딧은 갚아야 할 부채, 크레딧 기록 연수, 페이먼트 기록, 새로 신청하는 크레딧 등 5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작은 크레딧 점수 상승으로도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크레딧 점수 FICO 수치에 따르면 FICO 점수 750점이 770점으로 올라가면 5.35% 이자율을 5.128%로 낮출 수 있다. 월 페이먼트가 55달러 차이며 10년이면 6,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그래픽: 유재일

‘어누이티’ 투자? 은퇴 수입? 목적 분명해야

3년 고정 3.90% 수입 보장 안전 상품 지수형은 변동 심해 이자율 보장 안돼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은행에 저축돼 있다면 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어누이티라는 은퇴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누이티를 생각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정해 놓고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투자나 아니면 평생 수입 마련 목적으로 하느냐부터 결정해야 한다.

어누이티의 본래 목적은 투자가 아니라 평생 수입 보장이다. 예를 들어 즉시 연금에 10만 달러를 넣었다면 다음달부터 매달 400여 달러(플랜에 따라 다르다)를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다. 5년 묶어 두는 거치 연금이라면 5년간 붙여난 금액으로 평

생 받는다(800달러도 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함께 은퇴 후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istock

은행 CD 보다는 이자율이 더 많은 ‘다년간 연금 보장’ 플랜 즉 MYGA가 대표적이다. 이는 ‘고정 어누이티’ 상품으로 2년에서 많게는 20년 계약기간 동안 고정 이자율을 받는

다. 도중에 해약하면 해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3~10년 단기간 상품이 많이 나와있다.

한술 보험에 따르면 최소 10만 달러를 3년 만기 3.9% 보장 이자율의 MYGA에 단기 투자한다면 3년 후 11만2,162달러가 된다. 물론 보장 이자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5%대로 보면 된다. 5년이면 4.35%, 7년 4.55% 등 오래 맡겨 둘 수록 보장 이자율은 올라간다. 은행 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보장된 이자율이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한달 이내에 돈을 찾을 지 아니면 1035 교환으로 세금 없이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장기적 은퇴 수입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이자율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수형 연금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또한 가입해 매달 즉시 약정 금액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기간 묶여 있

다가 찾을 것인가에 따라 상품이다 크다.

그런데 이 지수형 연금은 S&P500 또는 스톡캡 러셀 2000과 같은 지수에 투자하므로 고정 연금보다 이자율은 높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수가 올라가는 대로 끝없이 이자율을 주지는 않는다. 보험회사가 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정한다. 대신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투자자들은 이자율 0%를 보장받는다. 다시말해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이다.

알아야 할 점은 7%~10% 등의 이자율을 준다고 하는 상품이 있다고 해도 마켓 사정이 좋지 않으면 이자율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인덱스는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완벽한 미래설계를 위해

**힘들게 일한 당신
노후와 미래설계는
누가 해줄까?**

일박에 모르는 당신
일에는 자신 있지만, 노후설계와 자산관리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는 한솔종합보험을 선택했다. 미래와 노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미래설계.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한솔 노후연금 적립 플랜

은행 CD나 일반 MONEY MARKET 저축보다 월등한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소개합니다.

사망보험금 보장
INDEXED RATES의 은퇴저축
생전 혜택 보장(LIVING BENEFIT)

OR

개인연금(IRA)
회사 연금(SEP IRA & 401K)
ROLL OVER & TAX 유예

OR

목돈 저축(INDEXED ANNUITY)
평생 INCOME
롱텀 케어(300% 혜택이나 10년 후 원금보장)

MYGA(다년간 연금보장 플랜)

단기간 (3~7년)
원금보장 + 보장이자 수익 혜택 플랜이며
최소 \$10,000부터
최대 \$2,500,000까지 적립한다.

만기	최소 적립금	보장 이자율	인출금
3년	\$100,000+	3.90%	\$112,162
5년	\$100,000+	4.35%	\$123,726
7년	\$100,000+	4.55%	\$136,542

*매달 이자만 인출도 가능 (7월 15일 기준)

지수형(Indexed) 연금 플랜

원금보장은 물론 중기(7년)와 장기(10년)간 적립하여 지수형 수익금으로 노후 대책이 가능함.
종합주가 하락시에도 안정적이며, 상승시에도 MAX CAP, MAX Participation Rates, Index Option 의 다양한 선택으로 높은 수익을 예상합니다.

	7년 만기 지수 연금플랜 예상 수익률과 금액		
	최고 수익률	최저 수익률	최근 수익률
최소 적립금 \$10,000+	185%	116%	148%
	\$28,494	\$21,557	\$24,678
최소 적립금 \$100,000+	196%	122%	155%
	\$295,727	\$222,276	\$255,286

(6월 30일 기준)

대표전화
(213) 487-4900 / (800) 300-0703

LA 지점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OC 지점 6301 Beach Blvd. #304, Buena Park CA 90621

윌리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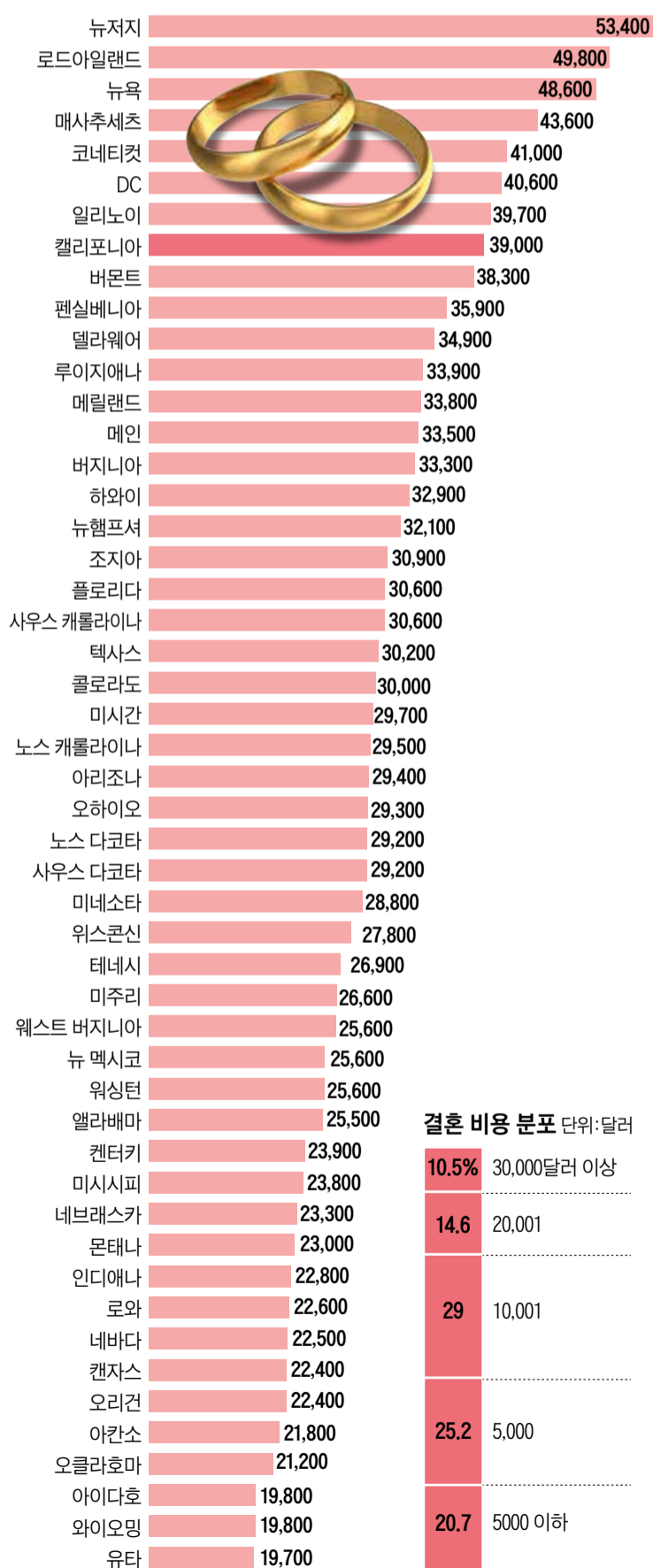
생명/은퇴연금/Medicare/LTC 한솔종합보험(주)
CA License#0E52100 Since 1977

결혼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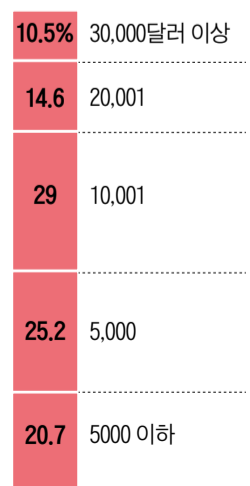
평균 결혼비용 2만 8,000달러

뉴저지 5만 3,400달러, 가주 3만 9,000달러
 버젓 세우고 우선 순위 정하기
 계약서 꼼꼼히, 추가비용 주의
 장소, 음식, 주류비 최다 지출 목록
 예산 절반을 식사비로 나눠 초청자수 결정

주별 결혼 비용 단위:달러



결혼 비용 분포 단위:달러



결혼비용이 만만치 않다. 장소 대여 음식, 예복 등 비용이 수만 달러는 족히 들기 때문이다.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가 결혼도 있겠지만 요즘 조촐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흔치 않다.

부모에게 할당되는 초청인 수도 극히 제한돼 있어 자녀들의 결혼은 많은 부모들의 그림이 짝이 되곤 한다. 그래도 알아야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테네시 내슈볼의 RSVP 이벤트어 결혼 계획 전문가 라엘라 고어는 “버젓에 맞는 결혼을 하려면 사전에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비용을 과소 평가해 결혼 계획 초반에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웨딩 리포트’의 셉 맥머레이에 따르면 팬더믹 이전에는 평균 2만 4,000달러였던 결혼 비용이 2022년에는 2만 8,000달러로 늘었다고 밝혔다. 결혼을 미루었다면 인플레이션과 경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혼 예산을 정한다

예산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예산을 세운다.

크리스틴 오키프 머릭 재정 어드바이저는 월 수입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조달 가능한 비용을 책정한다. 부모가 도와 줄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등등.

2020년 ‘웨딩와이어’의 결혼 트렌드 보고서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비용의 절반 가량을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결혼 비용을 도와줄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결혼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다.

우선 부모 등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현재 결혼할 자녀가 준비한 금액은 얼마이고 결혼 후 한달에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가. 이들 비용을 모두 합쳐 본다.

예를 들어 부모가 5,000달러를 도와줄 수 있고, 결혼 커플의 저축금이 각각 5,000달러씩, 또 결혼 후 10개월 동안 매달 500달러씩 5,000달러를 모을 수 있다면 총 예산은 2만 5,000달러가 될 것이다.

하객 명단 작성

예산이 결정되면 결혼식 규모를 정한다. 결혼 규모는 하객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진다.

고어 결혼 플래너는 “하객수와 음식, 음료수, 결혼식장 크기, 도움 직원수, 렌트비, 교통비, 꽃 등등”이라고 말했다.

‘낫리얼 웨딩 스타디’에 따르면 결혼 비용의 53%가량은 장소, 음식, 술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몇 명을 초청할 것인가를 예상하려면 우선 전체 예산을 절반으로 나누고 또 100으로 나눈다. 보통 식사와 피로연은 1인당 100달러 정도로 예상한다.

물론 어떤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느냐 또는 장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결혼 비용을 2만 5,000달러로 책정했다면 절반으로 나누면 1만 2,500달러가 되므로 약 125명을 초대할 수 있다.

하지만 초청자를 선정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100달러를 쓰는 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결혼식에 초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출 목록 작성하기

나머지 예산 절반은 초청장, 꽃값, 음악, 기타 장식 등에 할당될 것이다. 우선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목록을 다 작성한 다음 소요 비용을 %로 표시해 본다.

‘낫’의 결혼 비용을 예로 들어 보자.

장소 30%, 캐터링 23%, 라이브 피로연(밴드 등) 13%, 사회자 4%, 꽃 7%, 사진 7%, 비디오 7%, 결혼 반지 7%, 결혼 예복 6%.

여기에 서비스 비용(팁 등), 화장, 초대 손님들 교통 제공 등등을 추가할 수 있다.

총 결혼 비용 2만 5,000달러를 잡았다면 밴드 3,250달러, 꽃 1,750달러, 사진 1,750달러 등 우선 순위로 봉투를 만들어 본다. ‘웨딩와이어’에 따르면 장소 대여비는 평균 6,000달러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

예산이 초과된다면 우선 순위를 재 조정한다. 이 비용은 물론 협상이 가능하다.

1만 달러 디자이너 웨딩 드레스를 200달러 기성 대여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웨딩을 멋지게 하고

싶어 최고급으로 한다면 3~4배 이상의 추가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가족들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식 비용 지급

업체 대부분은 예약 때 선금을 요구하고 결혼 2주전까지 완납을 원한다. 또 환불도 불가능하다. 또 사진 등 대부분은 현금이나 수표를 원한다. 큰 규모의 회사는 크레딧 카드도 받는다. 카드 결제 할 경우 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오키퍼 머릭 재정 전문가는 한달 이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크레딧 카드 사용을 권한다.

2022년 베스트 여성 카드로 선정된 ‘캐피탈 원 벤처 리워드’ 카드로 신혼여행 또는 렌터카, 호텔비용을 지불한다. 분할 페이먼트도 가능하다. 보통 비용의 50%를 선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한다. 자칫 결혼식 할 때 추가 비용이 가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숨겨진 경비 항목을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약을 할 때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조항 여부를 업체에 질문하지 않는다.

개인 재정 모바일 앱 ‘퀘피탈’의 캐서린 살리스버리 공동 대표는 최근 결혼식 음식 메뉴가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30% 더 낸 고객도 있었다면서 결혼 전 3개월 이내 음식값을 올릴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 여러가지 내용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30명 결혼을 준비했는데 결혼 1주일전 35명이 취소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을 잘 한다면 35명분의 식사 비용을 저녁 파티용 스낵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낫’은 보통 49%의 결혼식이 초과 비용으로 평균 6,373달러를 지불한다. 세금과 봉사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용으로 20~25%의 예비 경비를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자넷킴 기자

(inherited IRA)

유산되는 IRA, 10년 이내 찾아야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 상속인 등은 예외
2년전 법 개정, IRS 새 규정 준비로 혼선
트러스트나 기타 명이는 5년 규정 적용
피상속인 RMD 받았다면 매년 돈 찾아야**

요즘 401(k)나 IRA 등 은퇴 저축 플랜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죽은 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축 은퇴 플랜이다.

예전에는 소유주가 죽고 자손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유산되는 은퇴 플랜은 물려받는 사람의 기대 수명에 따라 일정부분만 찾아써도 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법이 바뀌어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손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유산되는 은퇴 저축 플랜은 10년 내에 모두 찾아써야 한다.

이규정은 401(k) 등 직장플랜에도 적용되지만 플랜에 따라 이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2022년 2월 연방 국세청(IRS)은 10년 이내에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찾아 써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5월 5일까지 여론 수렴과 6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유산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법 개정

예전에는 전통 IRA나 401(k) 등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물려받으면 평생 세금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상속인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찾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법이 바뀌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10년내 다 찾아야 한다. 돈을 찾지 않고 있다가 10년 되는 해에 한꺼번에 찾아도 된다. 그런데 지난 2월 IRS는 아예 10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찾아쓰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세금을 낸 후 자금으로 적립하는 ‘로스’(ROTH)와 대부분의 배우자 대부분에게는 예외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19년 ‘은퇴 안정법’(SECURE Act)을 통해 상속되는 은퇴 저축플랜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안정법에 따르면 전통 IRA와 로스

IRA 및 유사 은퇴 저축 계좌 소유주가 2019년 이전에 숨질 경우, 이들로 부터 은퇴 계좌를 물려받은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꺼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나이가 10년 미만(종종 형제자매), 장애인 제외된다.

또 미성년 자녀(손주 제외)가 상속을 받는다면 자녀가 21세가 된 후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의 10년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경우에 따라 매우 소액의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은퇴 안정법 규정은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죽은 소유주의 나이가 72세가 넘어 최소 인출금을 받고 있다면(첫해는 이듬해 4월 1일까지 받아야 함) 매년 상속인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RMD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도 10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50세인 철수 씨가 세금 유예 전통 IRA를 올해 초 사망한 77세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철수 씨는 지난해 5월 바뀐 IRS 590-B에 따라 철수 씨의 기대 수명치를 근거로 계산된 금액 즉, RMD를 매년 IRA에서 찾아야 한다. 이후 철수 씨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계좌에 남은 나머지 잔고를 모두 찾아야 한다. 물론 RMD 이상을 찾아도 된다.

하지만 IRA 소유주가 RMD를 받기 이전의 연령(72세부터 RMD받아야 함)에 숨졌다면 매년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5세 영희가 71세에 숨진 할아버지로부터 IRA 물려 받았다면 영희는 10년간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

72세가 된 첫해에 한해 이듬해 4월 1일 이전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4월 1일 이전에 사망했고 소유주가 72세에 돈을 찾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10년간 매년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원 소유주가 첫 지불 날짜 규정 이전에 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스 IRA는 다르다. 소유주가 죽더라도 10년까지 매달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

‘은퇴 안정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손주는 제외)가 전통 또는 로스 IRA를 물려 받았다면 특정 나이때까지 10년 규정이 시작되지 않는다.

IRS는 21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주정부는 18세로 낮춘다. 이 나이 때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된다.

많은 상속자들이 원 소유주가 죽은 해 IRA의 RMD 찾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만약 소유주가 죽기 전 RMD를 받지 않았다면 유언 집행관은 이를 잘 모를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은 상속인이 지게 돼 있다.

이런 경우 찾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0% 벌금이 부과된다.

IRS 새 규정 발표

IRS는 올 2월 10년간 매년 돈을 찾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 5월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연말이면 최종 규정이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구좌가 트러스트나 기타 명의로 되어 있다면

만약 개인이 아니라 트러스트나 기타 명의로 유산 됐다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모든 계좌 잔고를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트러스트 돈을 받는 수혜자(베니피셔리)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수혜자가 IRA 수혜자로 인정 돼 기대수명에 따른 RMD가 산정된다.

IRA 수혜자 이름은 트러스트 수혜자보다 우선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돈을 누구에게 넘겨줄지를 지정하는 수혜자 즉, 베니피셔리 이름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장애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모든 계좌의 잔고를 정리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메디케어·메디칼

메디케어 파트B 보험은 무료가 아닙니다.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무료상담/가입 의무 없음)

정직합니다. 경험과 실력도 풍부합니다.

꼭 전화예약 후 무료상담 받으세요!

구영순

(213)595-4700

조선훈LA 메디케어 칼럼니스트
시니어전문보험 라이선스 에이전트
CA Lic. #OF37947

수호천사보험
21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코로나

코로나 걸렸다면 비행기 환불, 일정 조정 가능

**10일 격리후 호전된 후 여행
양성 반응 서류 등 증명 요구
환불은 쉽지 않지만 조정 가능
저가 티켓 변경 취소 매우 어려워**

코로나 19이 일상화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 쓰고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해서 여행을 떠난다면 민폐를 끼칠 수 있다. 한 모임에서 최근 유럽 여행을 떠났던 일행 중 한명이 코로나 증상을 숨겼다가 일행 모두 현지에서 코로나로 고생한 사례도 있다. 민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함께 해야 하는 항공기 여행은 그 폐해가 더욱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여행을 미루고 스스로 외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새로운 여행 에티켓이다.

이런 경우 항공사에 따라 비행기를 연기하거나 환불해 준다.

여행 일정을 재조정한다면 변경 비용은 받지 않는다. 다만 비행기 가격 변동이 있다면 차액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환불의 경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시장 동향 조사 기구인 '여행 목적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 여행객 절반 이상은 지난 7월에 한 차례 이상의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코로나만 여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요즘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빈번하고 짐 분실 사례가 많다. 직원 부족때문이다. 팬데믹 시작과 함께 감원했던 항공사와 호텔은 요즘 재 고용에 나서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조종사, 승무원부터

수하물 취급 직원 호텔 청소원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사정이야 어떻든 일단 여행전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여행 계획을 연기, 취소해야 한다.

에모리 의과대학의 헨리 우 감염병 부교수 겸 에모리 '트레블웰 센터' 장은 "여행중 병에 걸리는 사람

그러나 항공사로부터 크레딧을 받는다고 해도 시간 변경으로 인해 항공기 가격이 바뀌었다면 차액은 고객이 내야 한다.

여행을 완전히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르다.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의 대변인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항공사는 서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경우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의사 소견 또는 양성 반응 결과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련된 비용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허용된다면 고객은 변경 또는 취소 비용의 여행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항공 가격이 올랐다면 차액은 지불해야 한다.

항공 크레딧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많은 항공사는 크레딧을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유효 기간이 없는 것도 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8월 중순 항공료 크레딧은 더 이상 유효 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양성이 나온후 얼마나 지나야 여행

자가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국내 여행객은 음성 결과가 필요 없으며 미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 역시 출국 전 더 이상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입국 직후 음성 결과를 요구한다.

숙소는

대부분 호텔은 예약후 일정 기간내 해약을 하면 벌금 없이 예약을 취소해 준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체크인 24~72시간 전이다.

'에어비앤비'는 5월 31일 이후 예약한 여행객들에 대한 정책을 바꿨다. 바뀐 정책에 따르면 올 여름 예약했고 코로나와 관련한 이유로 취소한다면 더 이상 '정상참작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현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약을 취소하면 비용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

여행자 보험이 코로나로 인한 비용을 지불해 주나

여행자 보험 비교 웹사이트인 '트레블인슈런스 닷 컴'의 공동 대표 스탠 샌드버그는 "여행 취소 정책은 여행 전 양성 반응을 보인 고객들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프다는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테스트 결과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자가 항원 테스트는 인정하지 않으며 PCR 테스트 또는 원격 테스트를 요구한다.

여행 중 양성이나 격리되더라도 격리를 명령한 보건 기관으로부터 발부된 서류가 필요하다. 의사 소견서 또는 각국 정부 기관의 지시서 등이 다

존김기자



들이 상당히 많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코로나와 관련된 여행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코로나 양성으로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비행기 환불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불은 쉽지 않다. 오히려 항공기 취소와 환불 보다는 비행기 일정을 재 조정하는 것이 더 쉽다.

여행 전 코로나 양성이나 여행을 늦춘다면 항공사는 항공료에서 변경 비용을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에 따른 벌금 없이 비행기 시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이코노미석

기본 이코노미 좌석은 변경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티켓은 일반적으로 비행기표 가격이 가장 싸지만 환불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는 기본 이코노미석 구입 승객이라도 병이 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저가 항공으로 알려진 젯블루 에어웨이는 '블루 베이직 페어'를 구입한 고객들이 병으로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벌금 없이 항공기 취소 또는 스케줄 재조정해 준다.

이 항공사 대변인은 고객들은 '젯블루'에 연락해 크레딧을 받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경 또는 취소와 관

을 할 수 있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양성 반응 여행객들에 대한 가이드는 일반 가이드와 다르다.

CDC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코로나 증상이 시작된 후 10일 이내 또는 무증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날 짜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CDC는 일반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5일 동안 자가 격리하며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동안 고열이 없다면 이후 5일간은 외부 활동 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말 CDC는 비즈니스 단체와 항공사, 일부 보건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의

US메트로뉴스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월 방문자 2만5천명 돌파 US메트로뉴스

usmetronews.com wellbeingsus.com

창간 1주년

US메트로뉴스

자동차 페이먼트 못내 차량 압류 크게 늘어

달러, 대출 은행, 연체에 용서 없이 토잉
압류 차량 쉽게 되팔고 가격도 더 받아
19일 연체됐다고 차량 끌고 가기도
팬더믹 이후 가격 오르는데 무리한 구입
일부 서브프라임 고객 연리 26% 대출도

자동차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페이먼트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차를 회수해가는 압류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압류 차량을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어 딜러나 대출 은행들이 연체 고객에 무관용으로 가차없이 차를 압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클리블랜드 위숍은 지난해 가을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해 장기간 주차해둔 자동차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푸른색 카마로 승용차는 갑작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지난해 그에게 차를 판 딜러가 8월 페이먼트가 밀렸다고 차를 압류해 간 것이다. 단지 19일 페이먼트가 밀린 것이다. 위숍은 “미처 버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팬더믹 이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딜러나 대출 은행은 페이먼트가 늦어도 순식간에 자동차를 빼앗아 가지 않았다. 자동차 위치를 찾고 압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개입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를 압류해도 비용 회수가 안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팬더믹이 모든 것을 바꿔 버렸다.

중고차 가격 상승

요즘 자동차의 심장과도 같은 컴퓨터 칩을 포함해 많은 주요 부품 공급이 부족해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새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중고차 가격은 전례 없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고 승용차와 트럭 가격은 2020년 8월 대비 43%나 상승했다. 2020년 8월은 첫 가격 상승이 시작된 달이었다. 이에 반해 새 자동차 가격은 17%에 그쳤다.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딜러의 시선이 압류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 입장에서는 압류된 자동차를 매우 빠르게 팔 수 있고, 때로는 더 비싼 가격을 받는다. 또 요즘은 자동차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도 발달해 압류 대상 차량도 간단히 찾을 수 있다.

압류 건수 늘어

팬더믹 초반만 하더라도 자동차 압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출 은행들은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돈을 빌려준 고객들에게 매우 관대했기 때문이다.

아직 올해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타이틀 회사나 연방정부 관계 부서, 자동차 압류와 경매에 종사하는 많은 관계자들은 특히 중고 자동차에서 압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1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압류했던 플로리다의 압류 전문 마크 라섹은 이런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말 바벨 것”이라면서 “금속탐지기로 해변의 동전을 줍듯, 자동차 번호판 식별 카메라를 장착한 사람들이 거리를 운전하면서 압류 대상 차량 데이터에 올라온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를 즉시 감지한다”고 전했다.

앞선 위숍의 카마로의 경우, 버지니아 스탠포드의 ‘카스피안 자동차’ 딜러는 압류 2주만에 차를 팔았다. 이에 함께 딜러는 고리의 4년 대출 잔고를 지불하라고 위숍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딜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는 “딜러가 같은 차로 두번이나 돈을 벌었다”면서 “그것이 딜러의 목적이고 그들의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카스피안’ 자동차는 취재 기자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플로리다 포트 러드데일의 로버트 머피 변호사는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랐으면서 2명의 고객에게 경매에



서 팔린 압류 차량의 이익금 수천 달러를 되돌려 받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으로 대출 회수금을 넘은 비용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는 두 고객 모두 다운페이먼트나 에퀴티도 없었지만 차액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연체 비율 증가

자동차는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팬더믹 이전만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동차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가 나빠진데다가 연방정부의 팬더믹 지원금도 중단됐다. 또 코비드 초반 저축 구좌에 돈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잔고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됐다.

소비자 자동차 연체 역시, 젊은 세대와 비우량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에게서 특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60일 이상 연체 건수가 전년 동기 30% 상승했다. 아직 팬더믹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상태이기는 하다.

자동차 대출 최고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대출금은 총 1조 4,000억 달러다. 10년전에 비해 두배가 올랐고 크레딧 카드 부채를 앞선 지 오래다.

만약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수입이 줄어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터넷 경제 사이트 ‘뱅크레이트닷컴’은 중고자동차 대출 월 페이먼트는 500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새 자동차는 약 650달러이며 8명당 1명은 월 1,000달러 이상을 페이먼트로 내고 있다.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만약 중고차 가격이 낮아지고 이미 상승폭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더 낮아 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가치보다도 대출금이 더 늘어나는 손해를 보게 된다.

서브프라임 우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현상이 2007~2009년 대공황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겹날 정도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아직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자동차 업계와 재정의 불균형은 소비자와 대출 은행 모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우량 대출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저리의 이자로 중고 자동차 대출을 이끌고 있는 크레딧 유니온 전국 협회의 마이크 센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자의 4분의 1이 비우량 고객이지만 60일 이상 연체 고객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 시켰다. 크레딧 유니온은 미국 자동차 대출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출 은행들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3월 36억달러로 중고 자동차 대출 시장을 장악하는 은행 중 하나인 ‘펜타곤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은 연체율이 전년에 비해 80% 늘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어 약 4,500만 건에 달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애런 클레인 시니어 연구원은 팬더믹으로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금 방출과 비정상적 자동차 가격 상승이 중고차 시장의 서브프라임 대출을 크게,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다고 우려했다.

매사추세츠를 포함해 일부 주 정부는 비우량 딜러와 대출 은행의 규제에 들어갔다.

압류 위법 소지

대출은행은 10일 이상 페이먼트를 연체하면 자동차를 회수해 갈 수 있고 또 많은 주에서는 사전 통지가 필요 없지만 “치안 방해” 요소가 있다고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주 레몬법’ 저서 공동 저자가 밝혔다.

그는 압류행위에 위법 소지가 주마다 다르겠지만 압류가 자동차 소유주 앞마당 또는 개인 소유지에서 발생했거나 조금이라도 폭력적이었던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21면에서 계속
존김기자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익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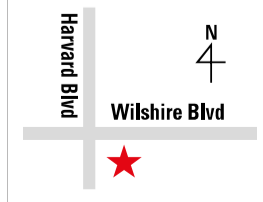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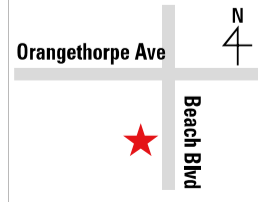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자녀들 격려하고 경청하며 변화 주시

슬기로운 대학 생활도 부모가 해야 할 몫 경쟁사회 새로운 환경에 즐거운 도전

대학 새내기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기숙사 입주를 위한 이사를 마치고 각 대학들이 주관하는 신입생 환영회 등을 거치며 어엿한 대학생이 됐음을 실감하고 있는 신입생들은 흥분과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항상 같이 지내던 자녀를 집을 떠나 보낸 부모들 역시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내 아이가 대학생활을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자녀들은 어떤 경험을 겪을 것이고, 부모들은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

쓸데 없는 걱정과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자녀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녀의 올바른,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짚어 보자.

1.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들

세상 일은 항상 생각과 실제 또는 현실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생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 후 고민과 혼란을 겪곤 한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지만 마냥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다.

▶인간관계

고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부터 이어온 관계들이 유지된다. 몇 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중학생이 되고, 다시 그들이 모여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된다.

이때까지는 친구란 개념이 긴 시간과 조건 없는 관계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거의 없다.

하지만 대학은 다르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 그것도 같은 동네나 지역이 아닌 미국 내 수십 개 주 또는 외국에서 온 각각이 모여 대학을 이루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가정의 경제환경도 다르고, 삶의 문화도 다르다. 동질성 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업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대학 수업은 고등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수업 방식은 물론, 깊이도 다르고 공부해야 할 양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같은 작은 대학의 경우 소수 클래스란 특징과 장점이 때론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 올 때가 있다.

왜냐하면 클래스 당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각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등이 가감없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비교가 된다. 특히 토론식 수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발표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학생이 성장한 가정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전공도 마찬가지다. 비록 대부분의 수업들이 교양과목으로 이뤄져 있지만,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맞보기 시작하면서 입학 전 생각과 현실의 차이점을 일찍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이는 자신의 장점이나 특성, 관심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전공 보다는 대학 간판에 더 비중을 뒀던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

또 다른 면에서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업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대학은 이전 학교 과정과 달리 신입생 입학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름 공부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에 입학해 보니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동급생들을 자주 비교하게 되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게 신입생들의 모습이다.

▶환경과 문화

입시를 준비하면서 지원할 대학을 고를 때 항상 대학의 위치와 문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넘겨버리곤 한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적응에 애를 먹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캠퍼스는 아름답고 좋는데 대도시와는 너무 멀어 뭔가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한다. 또 대학 문화가 너무 보수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진보적인 것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주말이면 어김 없이 벌어지는 잦은 파티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 술을 마실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에서의 음주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일부 재학생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섹스도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어떤 학생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부모의 역할

자녀에 입학식에 참석해 어느 새 어엿한 대학생이 된 모습을 보노라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미 새에서 태어난 새끼가 수없이

이 물어다 준 먹이를 먹으며 성장해 어느 날 날개 짓을 하더니 마침내 스스로 하늘을 날아 어미 곁을 떠나는 것처럼, 자녀들이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본격적인 독립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비록 대학에 진학했어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위한 일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는 기본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바쁘다”라는 말일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실제로 대학생활은 바쁘다. 학업에 스테디그룹 또는 클럽 미팅, 그리고 축제 등으로 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전화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섭섭해 할 필요는 없다. 카톡 등으로 안부를 물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항상 부모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라
자녀와 전화 또는 영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선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

는 것이다. 그것이 학교 또는 친구에 대한 불만일 수 있고, 때론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속상하거나 어이 없는 궤변에 화도 나겠지만, 그래도 참고 모든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부모의 생각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도 항상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올바른 방향이나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중간에 자녀의 말을 끊거나, 못마땅하다며 화를 내는 것은 금물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관심일 때도 있고, 때론 “도와주세요”라는 신호일 수 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대학생활을 최대한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변화를 체크하자

“변화”란 말은 어떤 때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바라지 않던 일로 가는 것도 포함한다.

자녀와 오랫동안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대화 시 전과 다르게 심한 불안감을 보인다면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의 이유는 대부분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과 관련된 경우들이다. 물론 이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대학에 간 자녀들은 쉽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얽매어 있거나, 걱정을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서다.

이런 상황이 감지됐을 경우 부모들이 먼저 큰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너는 왜”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대화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신 자녀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스트레스나 부담,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난 뒤 자녀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부모의 생각을 나누며 솔루션을 찾아가는 진지하고 따뜻한 자세가 필요하다.

21면에 계속
필립 기자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



최근 엘에이(LA)와 얼바인 등 남가주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차(현대, 기아)가 주요 타겟이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차가 운데 도난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 많아 훔쳐서 타고 달아나기가 ‘식은 죽 먹기’ 라는 거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 차를 도난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이의 대부분이 현대 쏘나타 고객이다.

그렇다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남을 위한 ‘책임보험(liability)’ 과 ▲나를 위한 ‘자차보험’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차보험 가운데 ‘차량 간 충돌 이외 보상(comprehensive)’ 이 차를 도난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다.

이 커버리지는 ‘차와 차끼리의’ 충돌(collision)이 아닌 사고에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차를 도난당했을 때나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의 충돌 ▲앞차에서 튕겨져 나온 돌에 의한 전면유리(windshield) 파손 ▲주차 중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파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다. 다만, 이 커버리지도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어, 전체 피해액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하자.

한편, 책임보험은 다시 ▲대인배상(Bodily Injury)과 ▲대물배상(Property Damage)으로 구분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대인배상은 \$15,000/\$30,000 (개인당/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이다. 가입 금액이 너무 적으면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여 놓는 것이 좋겠다.

자차보험에는 ▲본인 차량 보상(collision) ▲무보험자 보험(uninsured motor-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수혜자	커버리지	주요 내용
상대방	Bodily Injury (대인배상)	-캘리포니아 최소: 1만5,000달러/3만달러(개인당/사고당) -추천: 10만 달러/30만 달러 -너무 적으면 소송 걸릴 수 있어 유의할 것
	Property Damage (대물배상)	-캘리포니아 최소: 5,000달러 -추천: 50,000달러

‘나를 위한’ 보험 선택

수혜자	커버리지	주요 내용
본인	Collision (본인 차량 보상)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제외한 실제 차량 피해액 보상 -본인부담금을 높이더라도 꼭 가입하는 것이 유리
	Comprehensive (차량 간 충돌 이외 보상)	-차량 간 충돌 사고가 아닌 사고: 차량 도난, 동물 충돌, 반달리즘 등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무보험자 보험)	-무보험자 비율 16%(6명 가운데 1명) -10만 달러 이상으로 해 둘 것
	Rental Car (렌터카)	-보장 금액을 낮추더라도 꼭 가입할 것 -본인 과실일 때도 사용 가능
	Medical Payment (의료비)	-건강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 없어

ist) 등이 있지만 책임보험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를 아끼고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공제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팬데믹이 완화되고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환경에서 교통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보험이라는 것

이 미래에 발생을 위험(risk)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본인에게 맞는 커버리지를 선택해 운전 중 발생하는 발생하는 위험 없이 운전하길 추천한다. ▲213-351-3513, www.alexchalaw.com

‘법으로 돕는 남자(法助男)’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광고홍보회사 URI Global을 거쳐 현재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 에서 교통사고/상해/레몬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살 다솔이의 그림 일기

가을이 옵니다 (Fall is coming)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언제일까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렬한 빨강, 노을빛을 담은 주황, 활기찬 노랑은 모두 가을의 색깔입니다. 가을에는 친구들과 나뭇잎 위를 뒹굴며 신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을을 그렸습니다. 아름답

다운 나무와 나뭇잎, 아늑한 집이 있습니다. “와, 나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아빠에게 이런 집을 사줄게요.” 이 그림은 가을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었고, 가족과 행복했습니다. 가을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채화 (14X17)

윤민수·이영현 10월 1일 폐창가 공연



가창력과 감성의 남녀 끝판왕, 윤민수와 이영현이 오는 10월 1일(토) 오후 2시, 7시 폐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연다.

2000년대 대표 R&B 그룹인 바이브의 리드 보컬로 활동한 윤민수는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

디가’의 유후 아빠로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윤민수 창법’이란 말이 있을 만큼 가창력을 인정받은 뮤지션이자 ‘오래오래’, ‘사진을 보다가’, ‘그 남자 그 여자’, ‘술이야’ 등 대히트곡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빅마마 멤버이자 작곡가인 이영현은 대한민국에서 가창력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가수 중 하나로 스승인 김연우와 함께 남녀 보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전국민적인 메가 히트곡인 ‘체념’을 필두로 ‘체념 후’, ‘연’ 등 다수의 자작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티켓 가격은 90달러부터 시작하며, 전화 (714)232-0000 또는 온라인(koreanconcert.net)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Pechanga에 전화 문의 (888)810-8871로 하거나, 웹사이트 (pechanga.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 300~600분 운동, 사망 위험 낮춰

권장량 2~4배, 사망 30% 낮춘다
30년간 10여만명 자발적 연구 결과
어린이는 하루 60분 이상 운동 필요
운동 권장량은 주 150~300분

인간의 100세 장수에 대한 집념은 시대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알약 하나로 200세를 살수 있는 ‘블로츠’ 시대가 눈앞에 선듯 다가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장수를 달성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바로 운동이다.

그러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을까.

최근 11만 6,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연방 보건후생부 권장운동량의 최소 또는 그 이상의 강한 운동을 지속하면 조기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인 육체 운동 가이드라인

미국 성인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억 1,700만 명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일반적 만성 질환 10건중 7건은 정기적인 운동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만성인의 80%는 유산소 또는 근육 강화 활동의 주요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연방 보건후생부는 1주에 150~300분의 가벼운 운동을 권장했다. 만약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한다면 75~150분을 추천했다.

가벼운 운동이란 걷기, 역도와 강

도가 세지 않은 육체 운동을 말한다. 반면 강도 높은 운동으로는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이 속한다.

많은 수록 좋아

최소 운동량의 2~4배를 운동한다면 더 오래 산다.

이번 연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참가자 스스로 노동을 제외한 여가 시간의 운동을 지난 30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답변했다.

그 결과, 연방 보건후생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장 운동량의 2~4배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한 참가자들은 심혈관 질환과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300~599분 이상 운동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는 이들 참가자들은 모든 원인의 사망을 26~31% 낮췄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28~38% 끌어내렸다. 또 심혈관 질환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역시 25~2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을 권장량보다 2~4배 더 많이 하는 사람 역시 사망이 21~23%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27~33%, 심혈관 질환 이외의 사망 위험은 19% 낮췄다.

이들 수치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조금 한다고 보고한 사람과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어서 다소간의 수치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운동이 건강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어 운동이 분명 수명을 늘려 줌을 알 수 있다.

늦었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예일 의대 스포츠 의학 및 정형외과 엘리자베스 가드너 부교수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항상 단계적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 가야 한다”면서 “10분부터 시작한다. 걷기를 한다면 우선 천천히 걷다가 강도를 높여 빠르게 걷기를 반복한다”고 조언했다.

서서히 몸이 강도 높은 운동에 적응하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일단 익숙해지면 주수에 걸쳐 시간과 거리 그리고 속도를 높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가드너 교수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려면 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준비운동을 강조했다.

또 준비운동을 할 때는 하려는 운동과 연계된 부위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달리기 전 무릎 관절을 잘 풀어주고 테니스를 한다면 팔을 잘 스트레치 해준다.

한편 운동은 한꺼번에 하는 것 보

다 1주에 최소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좋다. 근육 양을 늘려주고 뼈 강도와 밸런스 유지에도 운동이 큰 도움을 준다.

연령별 운동량 가이드라인(연방 후생부)

▲취학 전 어린이(3~5세)
 지속적인 운동은 성장과 발달을 향상시킨다. 데이케어 교사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지도한다.

▲취학 아동과 청소년
 나이에 맞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17세 청소년은 강도가 낮거나 강도가 높은 운동을 매일 60분 이상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하루 60분 이상 지속하며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주 3일 이상 유지한다.

근육 운동 역시 하루 60분 이상 필요하다. 어린이와 사춘기 청소년

은 1주에 최소 30이상의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 뼈 강화 운동 역시 하루 60분 이상이며 주 3일 이상 한다.

▲성인
 성인은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 앉은 시간을 줄여야 한다.

성인은 1주일에 최소 150분(2시간 30분)~300분(5시간)의 운동이 필요하다. 또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은 1주에 75~150분 지속한다. 전문가들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한다.

근육 단련 운동을 한다면 1주에 2회 이상 반복한다.

▲시니어
 시니어들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복합하는 것이 좋다. 우선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한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하고자 하는 운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성 질환 시니어에게 150분 이상 운동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미국 대학

19면에서 계속

▶전공 바꾸기, 휴학 등은 흔한 일

입학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녀가 느닷없이 전공을 바꾸겠다고 하거나, 학교를 쉬겠다고 말을 하게되면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심지어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대학에서 이런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물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가 그런 길을 걷는 것은 아니란 현실을 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 자녀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럴 만한 이유를 확인했다면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일들도 결국 자녀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돌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다. 부모의 기대 또는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이 된 자녀관에 대해 알아봤다.

물론 이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집과

떨어져 지내는 과정이다 보니 자녀의 대학생활을 상세히 알 수 없고,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의 성숙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모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 생각에 올바른 결정이나 선택이 아니라고 자녀를 밀어 붙이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그들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정도에서 자녀를 믿고 한 발 물러서야 부모의 마음도 편해진다. 필립 기자

자동차 페이먼트

17면에서 계속

연리 26.2% 대출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43세 간병전문 간호사 리스카 패카드는 지난해 오피스 주차장에서 2017년 링컨 MKX를 압류 당했다. 그는 “처음에는 도둑맞은 줄 알지만 나중에야 SUV가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트럭에 의해 토잉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전 링컨 SUV를 구입했다.

그는 자동차를 판 몬테벨로 소재 한 딜러로부터 취업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대출을 취소한다는 말을 들

었다고 말했다.

현재 딜러와 그녀 변호사가 협상 중이다. 패카드는 2,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 하고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해 2만1,285달러에 SUV를 구입했다. 나머지는 연리 26.2%에 6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다. 비우량 고객에서 적용되는 평균 9~20%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판매 계약서를 보면 패카드는 원래 원금 보다도 더 많은 1만 9,561달러의 이자를 내야 한다.

두자녀를 키우는 패카드는 학자금 대출과 의료비 연체로 크레딧이 나빠지면서 사람이 지켜보는 오피스 앞에서 압류됐다는 사실에 창피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존김기자

건강

하루 수센트로 대머리 완벽 치료 가능

하루 수센트로 대머리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다고 한 피부과 전문의가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머리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에일 의과대학의 브렛 킹 피부과 전문의는 아주 오랫동안 탈모 방지약으로 사용돼 온 ‘미녹시딜’(minoxidil)이 대머리 치료제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대신, 저용량의 알약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 저용량 ‘미녹시딜’ 내복약은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 했지만 대부분의 대머리 환자와 많은 의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또 연방식품의약품(FDA)의 내복약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방법으로 피부과 의사들의 비공식 처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피부과 학과장 아담 프리드만 교수는 “비공식 처방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하지만 (효과가 좋아) 자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부과 의사들이 이 비공식 처방 약의 효능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에서는 처방이 효과가 있다면 종종 직접 조제한 이런 비처방 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에모리 의과대학 피부과 학과장 로버트 스웨틱 교수도 이에 동의한다.

그는 “공식 처방전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는 것 대부분은 비공식 처방이라고 환자들에게 알려준다”고 밝혔다. 그는 피부색소 이상, 피부 염증성 질환, 계속되는 가려움증 등도 비공식 처방 치료를 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로게인’의 주요 성분

‘미녹시딜’은 두피에 문지르는 거품 또는 로션 형태의 대머리 치료제 ‘로게인’의 주요 성분이다.

1988년 남성용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고 1992년 여성용 승인 이후 지금은 제너릭으로 생산된다.

원래 고용량 ‘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그러던 중 수십년 전 우연한 기회에 머리카락 재생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환자들은 종종 이 내복약이 온몸에 체모를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의사에게 알렸다. 이후 제약 회사가 이를 로션으로 개발해 이름을 ‘로게인’으로 불렀고 대머리 치료제로 정식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로션이나 거품 형태가 어떤 환자에게는 별로 효능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마 바르다 도중에 중단하기 때문인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여성들은 머리에 끈적거리는 물질이 남아 있는 것이 싫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로게인’을 판매하는 존슨앤존슨은 뉴욕타임스의 질문에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는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녹시딜’ 성분은 모근에 있는 ‘설포 트랜스퍼라제’라고 불리는 황산전이효소와 만나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모근에 ‘미녹시딜’과 혼합될 효소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약을 내복약으로 구강 섭취하면 자동적으로 활성형으로 바뀐다.

저용량 알약

20년 전 우연히 저용량 알약이 대머리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우연한 기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로드니 싱크레어 호주 멜버른 대학의 피부과 교수는 대머리 패턴을 가진 여성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머리 상부 모발이 가

늘어진 이 여성은 보기가 너무 흉하다며 치료를 받았

대부분의 환자와는 달리 로게인은 이 여성 환자의 모발 재생에 효능을 보였다. 그런데 거품 형태의 약은 표피에 앨러지 반응 보였다. 여성 환자가 약을 바르지 않으면 모발은 다시 가늘어질 것이다.

싱크레어 교수는 “당황했었다”면서 “그 환자는 매우 의욕적이었지만 표피에 바르면 앨러지 반응이 생긴다는 것을 안 우리는 앨러지 반응을 막기 위한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밝혔다. 소용량을 내복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싱크레어 교수는 ‘미녹시딜’ 알약을 4분의 1로 잘랐다.

놀라운 것은 저용량 알약이 혈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의 머리를 자라게 했다. 고용량 ‘미녹시딜’은 혈압 강하제다.

그는 용량을 더 줄여봤다. 결국 알약의 40분의 1까지 줄였고 이후 이 약을 같은 양으로 계속 처방하기 시작했다. 첫 여성 환자는 아직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

2015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싱크레어 교수는 저용량 ‘미녹시딜’ 내복 약 이

여성 100명의 모발을 재생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7년 정식 논문 발표에서 확실한 연구를 위해 환자를 무작위로 선택한 후 ‘미녹시딜’ 그룹과 설탕 그룹으로 나누어 시험했는데 설탕 그룹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1만명 이상의 대머리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성공담 사례 늘어

최근 더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모발 손상과 나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머리 환자에게 저용량 알약을 처방하고 있다.

존홉킨스 의과대학의 크리스탈 아거 피부과 교수는 “요즘 인기가 많다. 학회에서 성공담을 발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모증 전문이 아닌 의사들은 “미녹시딜 내복약에 익숙하지는 않다”고 덧붙이면서 드물게 혈압 치료제로 사용하는데 약 포장에 심장문제를 경고하는 문구가 써 있지만 이 경고는 훨씬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라고 소개했다.

탈모가 매우 심각하다면 ‘미녹시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거 교수는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대부분 탈모로 두피가 번들거린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회복할 길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완전 대머리는 아니지만 옆에서 언뜻 보기에 머리가 충분히 많이 빠진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FDA 승인을 받을 만큼 철저한 임상 실험은 없다. ‘미녹시딜’ 알약은 계속 비처방 약품으로 사용될 것이며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피부과 의사들은 밝혔다.

킹 교수는 “구강 미녹시딜 가격은 하루 수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임상실험을 위해 수천만달러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 아마 결코 이런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환자는 저용량 복용으로 얼굴과 턱 수염이 자라는 것을 경험한다. 싱크레어 교수를 포함해 일부 피부과 의사는 이 원치 않는 부위의 체모 성장을 막기 위해 안드로젠이라고 불리는 성호르몬을 차단하는 고혈압약 ‘스피로노락톤’을 소량 처방해 사용하곤 한다.

이 비처방 치료제를 원치 않는다면 일반 약국 선반에 있는 발모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효능에 회의적이다.

시중에는 FDA 승인을 받은 ‘로게인’과 여성 전립선 비대증에 치료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고용량으로 투여되는 ‘피나스테라이드’가 시판된다. ‘피나스테라이드’는 탈모 약이기는 하지만 남성들에게만 승인됐는데 성기능 장애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로게인 성분 ‘미녹시딜’ 저용량 알약
고혈압 약이지만 1/40 소량으로 사용
FDA 임상실험 필요 없는 비처방 발모제
번들 대는 중증 대머리는 효과 별로



istock

4,300만 명 학자금 탕감 최대 2만 달러까지



6월 30일 이전 받은 연방 보증 대출 해당 펠그랜트 받지 않았으면 최대 1만 달러

개인 12만 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 학부모 'PLSU' 펀드 탕감 대상

1면에서 계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격적인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 학자금 부채가 있다면 1인당 1만 달러, 저소득 학생들에게 지급된 무상 교육비 펠그랜트를 받았다면 최고 2만 달러까지 탕감된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과 함께 부모가 받은 '플러스론'도 탕감 대상이다.

수입은 2020년 또는 2021년 수입을 기준으로 개인 AGI 12만 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까지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연방 지원 학자금이 대상이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인 학자금 대출금 중간값은 2만~2만 4,999달러이며 이중 4분의 1은 남은 부채 잔고가 1만 달러 이하다.

다음은 이번 조치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어떤 부채가 탕감되나
연방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부채만 가능하다. '플러스'(PLUS) 론도 가능하다. 학부모, 대학원생도 가능하다.

일반 대출(Private loan)는 대상이 아니다. 또 많은 '연방 가족 교육 대출'(F.F.E.L.) 역시 제외될 수 있다.

2020년 시작된 상환 중단에 해당되지 않은 F.F.E.L.을 가졌다면 이번 탕감을 받지 못한다.

▶학위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되나
된다. 학위에 관계없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가능하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우선 연방 학자금 대출을 해준 대출

회사가 제대로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야 나중에 탕감 절차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대출회사가 누군지 모른다면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who is my loan servicer'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펠그랜트란 무엇이며 더 많이 탕감해주는 이유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 학비 지원금으로 1965년 고등교육법 이후 지급된다. 값을 필요 없는 돈이다. 학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많은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2020~2021학년도 대학생 30%가 펠그랜트를 받았고 가정의 연소득은 6만 달러 미만이다. 펠그랜트는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연 6,895달러의 지원금을 받는다.

▶펠그랜트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졸업한지 오래돼 연방 펠그랜트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FAFSA로부터 받은 이메일 또는 편지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 학자금 대출이 기록된 '연방 학자금 지원'(Federal Student Aid)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tudentaid.gov에 접속해 FSA ID를 넣으면 열람해 볼 수 있다.

▶펠그랜트를 받지 않았다면
연방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있다면 수입에 따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 받는다. 개인 12만 5,000

달러, 부부 25만 달러까지다. 현재 대출자와 부양가족 학생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약 800만 명은 연방 교육부가 이미 소득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탕감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현재의 수입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졌는지 확실치 않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수주 후에 준비돼 교육부가 발표할 것이다.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StudentAid.gov/debtrelief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다 갚았다면
학자금 탕감 플랜은 현재 대출금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상환이 중

단됐는데도 2020년 3월 이후 자발적으로 상환금을 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연방학자금지원국'(Federal Office of Student Aid)가 밝혔다. 대출 회사에 환불을 문의한다.

▶학자금 상환금 동결 조치가 연장됐나
상환금 동결이 12월 31일까지 동결됐다. 당초 8월 31일까지였으나 바이든이 연장 시켰다. 이자율은 재개될 때까지 계속 0%다. 지난 4월 발표된 추가 연기로 팬데믹 이전에 연체된 페이먼트 역시 자동으로 연기된 것으로 기록된다.

▶바이든 플랜에 기타 재상환(repayment) 옵션이 포함돼 있나
연방 교육부는 대출자의 쓰고 남은 월 수입(discretionary income)의 5% 이하로 제한하는 재상환 플랜을 제안했다. 이전에는 10%였다. 재상환 신청을 하면 1년 이상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만 8,000달러의 독신은 월 31달러씩 갚을 수 있다. 쓰고 남은 수입이란 음식, 렌트

와 같은 꼭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학자금 재상환을 계산할 때는 대출자의 연 소득과 연방 빈곤선 사이의 차액, 가족 수 및 거주지역이 모두 고려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탕감 받나
약 4,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중 2,000만 명은 완전 탕감이 가능하다.

백악관은 이번 플랜은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탕감의 90%는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소득자라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탕감된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나
백악관은 자세한 내용을 조만간 추가되겠지만 탕감된 금액은 연방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통 부채를 탕감 받으면 그만큼 소득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다.

대출금이 1만 2,000달러 이하는 10년 만 상환을 하면 탕감 받는다. 이전에는 20년이었다. 이런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닌 대부분의 대출자는 10년 이내에 모든 학자금 부채를 갚게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용수산에 오시면 특별한 날이 될것입니다
Tel: 213.388.3042
www.yongsusanla.co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이경수 작가
KCC(Kauai Community College,
HI) 미술과 교수 역임. (현) Gallery
KLBT Art Director

제26회 남가주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제 26회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26TH ANNUAL KOREAN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



지도신부:
윤승식모세

- 김윤진
- 주선희
- 김성일
- 김원실
- 장제인
- 문두현
- 정나나
- 홍한나
- 김복임
- 한헬렌
- 권케니
- 박그레이스
- 엄선애
- 최유니스
- 심계식
- 강세실리아
- 시제시카
- 임주빈
- 최미카엘라
- 이미정
- 황수잔
- 곽설리
- 양문선
- 김인철
- 황데레사
- 김미경
- 김줄리아
- 김천애

SEPT. 10 SAT. - SEPT. 23 FRI., 2022
 OPENING RECEPTION: SEPT. 10 SAT., 2PM - 5PM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P: 213.365.8285
 TUE. - FRI. 11AM - 5PM | SAT. 12PM - 4PM

리앤리갤러리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올해로 제 26회를 맞이하고 있는 남가주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회장 김천애)이 9월 10일(토)부터 23일(금)까지 리앤리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윤승식 모세 신부님의 영적 지도 아래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5:17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원 작가들의 독특한 시각언어의 세계는 자유로운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각자가 느끼는 말씀의 메시지를 회화, 사진, 공예, 도예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제작하였고, 깊은 내면의 성찰을 통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 예비자로서 미술을 전공하고, 3년이상 꾸준한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된 가톨릭미술가협회는 판매되는 작품들의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고 있다.

전시회 참여 작가는 김윤진, 주선희, 김성일, 김원실, 장제인, 문두현, 홍한나, 김복임, 한헬렌, 권

케니, 박그레이스, 엄선애, 최유니스, 심계식, 강세실리아, 시제시카, 임주빈, 최미카엘라, 이미정, 황수잔, 곽설리, 양문선, 김인철, 황데레사, 정나나, 김미경, 김줄리아, 김천애이다.

▶리셉션: 9월 10일(토) 오후 2시~5시이며, 작은 보탬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톨릭 미술가협회전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전시문의: 김천애 (626)221-4220

▶전시기간: 9월 10일~23일

▶전시회 주소: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글이경수

2022년 로스엔젤레스 패러다임 - 그녀의 시대

공모전 수상자 12명 전시 열려

〈2022년 로스엔젤레스 패러다임- 그녀의 시대〉 공모전 수상자 12명의 작품들이 지난 달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리앤리갤러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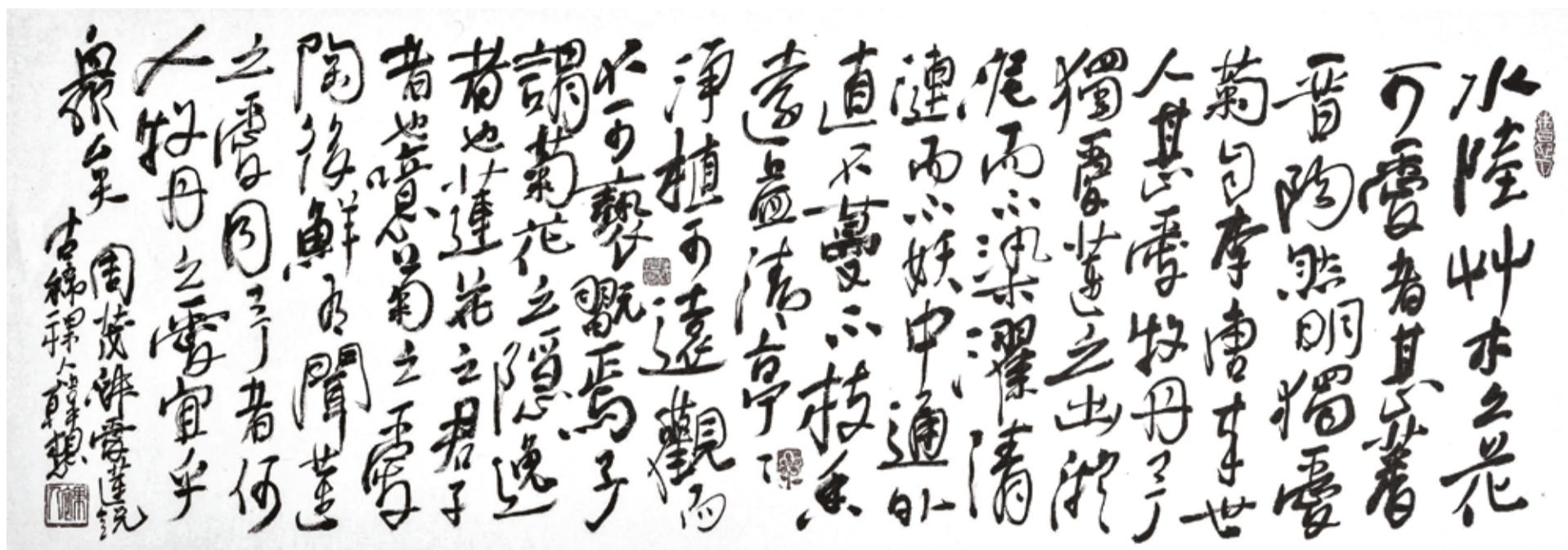
재능있는 한국/한인 및 신진 작가들을 미주 지역에 소개하여 작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지지하며 협력하는 DANOK Inc.(대표 강다영·홍

한나)가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그녀의 시대’로서 수 세기 동안 남성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의 시대에서 여성의 권리 페미니즘으로 변해가는 오늘날, 여성의 존립을 받쳐줄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념을 맞이할 현대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인간의 자세에 대한 고찰이었다.



〈2022년 로스엔젤레스 패러다임- 그녀의 시대〉 공모전 수상자 12명의 작품들이 리앤리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조상의 얼과 혼, 서각·서예전 열린다



한국의 얼(Calligraphy & Wood Carving Duo)

목우 정기호·무상 한상희 서예전
리앤리갤러리 10월 1일~15일

한국의 서예와 서각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목우 정기호 선생님과 무상 한상희 서예가의 전시회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리앤리갤러리(이아네스)에서 열린다.

오랜 시간 작품 생활을 해 온 두 작가의 전시회는 한국의 얼이 담긴 묵향의 깊은 은은함과 현대 서각의 미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목우 정기호 작가는 서예, 서각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준 그대로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표현방법의 다양성을 연구하며 작품세계를 펼쳐오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굳게 이어가는 나무의 참 모습에서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속의 바램을 다양한 재료와 운도를 통해 삶을 반추하여 전통예술의 발전과 전통성을 알리는 희망을 표현하려 합니다”라는 작가의 작품의도는 그의 작품에 역력히 드러난다.

평면의 글씨에서 재료의 특성을 살려 입

체적인 시각물로 완성된 작품에는 조상의 얼과 혼, 시간의 흔적을 담아 현재를 나타내고자 했다. 다양한 색채의 더함과 문자가 주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 살아 숨쉬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예술작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의 작품 철학이다.

이번 LA전시회는 문화예술의 향기 속에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더욱 폭 넓은



마음의 소통을 기대하며 준비했다.

정기호 작가는 개인전 13회, 국제전 60회, 단체전 800회의 전시 경력과 2021년 인천광역시 문화상외에 많은 수상, 현재는 목우 서각 연구소 소장으로서 후진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상 한상희(필명: 한상) 서예가는 (고)하농 김순옥 선생님 밑에서 처음 붓을 잡은 지 이제 2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많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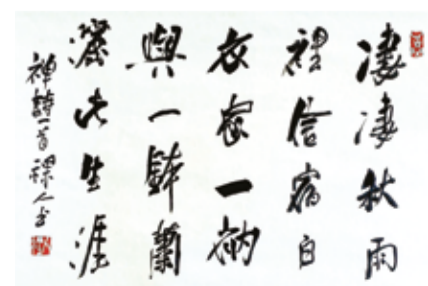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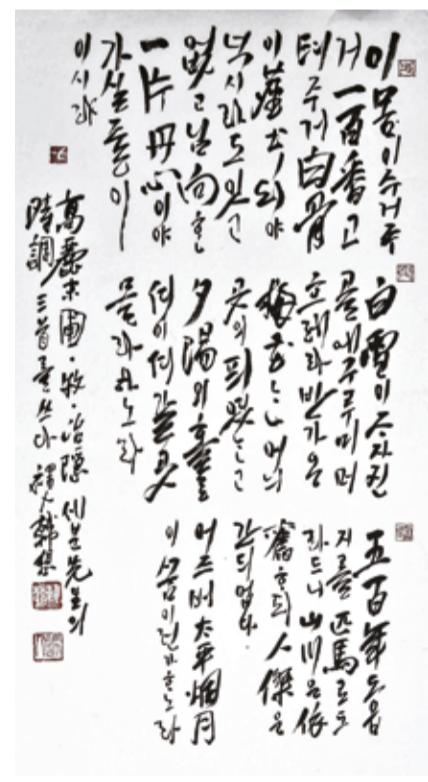
들을 발표했지만, 이번 전시회는 팬더믹으로 2년이나 미루어져 온 고회전이다. 칠십을 훌쩍 넘긴 지금, 되돌아 갈 수 없는 시간들을 회상하며 남아있는 자신의 흔적들을 갈무리하고 추수려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

《심직필경》 마음으로 짠 것을 붓으로 종이 위의 발을 갈다. “나는 부족하나마 붓과 먹 그리고 글씨로 나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작가는 코로나로 갖혀 살았던 기간동안 서예는 가장 고마운 벗이 되었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시와 글, 하고 싶은 마음 속의 이야기들, 그리고 일상에서 얻게된 소소한 깨달음을 쓰고 표현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한상희서예가.

전북 서예 비엔날레 공모전에서 특선 3회 등 다수의 수상 경력과 현재 미주한인서예협회 고문과 세계서예비엔날레 초대작가이다.

- ▶리셉션: 10월 1일(토) 2~5시
- ▶문의: 이아네스 (213)365-8285
- ▶기간: 2022년 10월 1일~15일
- ▶전시장소: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클이경수



9월의 시

한가위 보름달

정연복(1957~)

음력 팔월 한가위
 두둥실 보름달 떴네
 저 동그랗고
 온순한 빛 하나 있어
 온 누리 휘영청 밝고
 평온한 기운 넘쳐나네
 내 맘속 그늘까지도
 환히 밝아오네.
 살아가는 일은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법
 슬픔이 밀물지고
 삶이 많이 괴로운 날에도
 쉽사리 눈물 보이지 말고
 마음 하나 편히 가지면 된다고
 가만가만 이야기하네
 지친 내 어깨 토닥여 주네.
 꼭 어릴 적
 엄마의 젖무덤같이
 마냥 포근하고 평화로운
 저 동그라미 하나.



추천작가
이정아(본명 임정아)
 -서울 경기여자 중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
 -1985년 미국 이민
 -1997년 한국수필 등단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심사위원(2008~2012)
 -재미수필문학가 협회장 및 이사장(2009~2012)
 -현 국제펜한국본부 미서부 지역회 부회장(2021~)

〈해설〉

원래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추석은 수확제이다.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올해는 9월 10일이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다.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다.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 중국인이 사용하던 중추니월석이니하는 말을 합해서 축약하여 추석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한가위는 가배(嘉俳), 가위, 가윗날과 함께 추석을 일컫는 말이다. 가위는 음력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한가위의 ‘한’은 ‘크다’라는 뜻이다. 즉 ‘한가위’는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을 합친 것으로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날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국의 하늘 밑에 살고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보통의 날일 뿐인 조금은 쓸쓸한 날. 그래도 휘영청 달은 한국과 미국이 같은 달이니 달을 보며 그리운 서로에게 행복을 빌어보자.

임희진 사모의 세상보기

맘매와 헤어브러쉬

Oh, where is my hairbrush?
 Where, where, where... is my hairbrush?
 Why do you need a hairbrush when you don't have any hair?
 -VeggieTales, Hairbrush song 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다 보면 집안 사정을 고스란히 선생님에게 알려 바치는 아이들이 꼭 있다. 한 아이의 고해가 시작되면 다른 아이들도 앞을 다투어 자기네 사정을 토해놓는데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체벌의 이야기다. 애초에 그 체벌이 왜 있었는카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강렬했는지가 주제인 걸 보면 누군가에게 맞는다는 것 자체가 큰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랑의 때”로 사용되는 도구도 집집마다 차이가 많은데 엄마의 손바닥이 제일 많았고 약하게는 엄마가 신고 있던 슬리퍼에서 강하게는 골프채와 허리벨트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쯤 되니 과연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고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된 것이 이해가 되었다.

어쨌든 우리 집에도 이 “사랑의 때”가 존재하긴 했다. 바로 달러스 토어에서 구입한 공작용 패들이었

는데, 맨손으로 때려서는 안 되고 때로 사용하는 것을 따로 정해 놓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구한 것이었다. 나무로 만든 편편한 주걱 모양의 패들인데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 실제 아픈 것보다 찔싸하는 음향 효과가 좋아서 혼내는 분위기잡기에 딱 좋았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싸우고 말썽을 부릴 때마다 “맘매 어딴어? 맘매 가져와!”를 외치며 맘에 쏙 드는 맘매가 손에 익어갈 무렵이었다. 다른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한참 어렸던 큰아이가 어디선가 헤어브러쉬를 들고 와서 두렵고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이 집에도 “맘매”가 있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그 패들 헤어브러쉬의 편편한 면이 우리 집 맘매와 똑같이 닳아 있었던 이유였다.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목사님 댁에서는 헤어브러쉬로 애들을 때리냐고 마구 웃어대셨다. 졸지에 이상한 맘매로 훈육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후로 우리 집에서 맘매를 찾을 때는 맘매 어딴어 대신 자연스럽게 위에 소개한 어린이 비디오 VeggieTales Silly song 중의 하나인 Hairbrush song을 부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엄숙해야 할 맘매 시간이 재밌고 웃긴 silly moments가 되어 버렸지만 훈육의 효과는 더 좋았다. 어쩌다 시작된 이 전통 아닌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깔깔대며 어린 시절의 훈육 시간을 추억한다.

요즘 시대에 체벌이란 훈육을 빙자한 범죄로 찍혀버렸다. 우리 시대에 당연했던 사랑의 때는 옛 세대의 부끄러운 유산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데 오히려 체벌이 없어지면서 훈육도 함께 사라진 듯하다. 모두가 자신의 아이들을 왕처럼 키우며 을이 아닌 갑이 되라고 가르친다. 폭력적인 체벌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어른이 된다.

체벌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훈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희미해진 훈육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내 부모님은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다고 깨닫기를 바란다. 그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이어질 때 함께 살아가기에 더 나은 세상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임희진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졸업.
 음악치료 과정 수료.
 현재 벨플라워가나안교회 사모.

경기도 말리브 아유회



경기도 총 동창회(회장 73회 임관혁) 지난 8월 20일 캘리포니아 말리브에 위치한 '포인트 뒸'(Point Dume)에서 48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아유회에서는 경기 산악회원들의 해변 암벽타기 시범도 있었다. 참가 동문들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타운 첫 한인 연방의원 배출 힘 모으자”

제34지구 재도전 데이빗 김 변호사 ‘후원의 밤’
한인 표심 뭉치면 11월 8일 결선 통과 ‘충분’

LA 한인타운과 LA다운타운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제 34지구 연방하원의원에 재 도전한 한인 2세 데이빗 김 변호사의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22일 LA 용수산 한식당에서 5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한인타운 최초의 한인 정치인 배출이라는 목표를 향한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행사였다.

국선 변호와 이민 변호 등 가난한 자의 편에서 싸워오는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여유 있게 예비 선거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8일 결선투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본보 5월호 보도). 지지자들은 그의 멋진 분투를 위한 출정식과도 같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아낌없는 정성과 후원의박수를 보냈다.

이번 선거는 김 변호사만의 도전은 아니다. 한인사회 전체의 희망이자 목표다. 미국 한인 이민사의 중심인 LA 한인타운에서 첫 한인 정치인 배출이라는 대역사의 서막이 가까이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LA 시, 주, 연방 의회에 도전장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인타운을 지키는 한인 정치인 배출이 빈번히 가로 막힌 것이다.

하지만 이번 데이빗 김 변호사는

다르다. 그의 상대는 막강한 정치 세력을 등에 업은 지미 고메스 현 의원이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2020년 첫 도전에서 고메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의 가까운 표차로 낙선했다. 득표율 47% 대 53%다. 히스패닉 인구가 60%에 가까운 이곳에서 김 후보에게 쏠린 값진 표심이다.

당시 고메스가 모은 선거자금은 140만 달러. 김 변호사는 19만 달러에 그쳤다. 비율로 따진다면 9대 1로 뒤졌지만 표심에서는 대등한 선거였다. 누가 봐도 ‘골리앗’에 맞선 ‘다윗’ 과도 같은 선거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두번째 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지역의 이슈를 찾아 해결하고 연방차원의 한인사회 대변, 스포츠비즈니스 지원, 환경, 이민, 복지 정책 수립 등의 친서민정치를 주창한다.

지난 6월 예비선거를 가볍게 통과한 김 변호사는 11월 8일 본선에서 고메즈 현 의원과 재대결을 펼친다. 용기 있는 ‘다윗’이 덩치 커진 ‘골리앗’을 상대로 한 2라운드다.

그러나 아직 김변호사에게는 ‘총알’이 부족하다.

6월 30일 현재 김 변호사의 선거기금은 8만 8,000달러에 그쳤지만



8월22일 LA 한인타운 전통 한식당 용수산에서 열린 데이빗 김 변호사 후원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한인타운 전체를 대변하는 캘리포니아 제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탄생을 기원했다. 두번째줄 왼쪽 다섯번째가 데이빗 김 변호사.



데이빗 김 변호사.

고메스 의원은 이미 136만 달러를 넘겼다. ‘14대 1’ 비율의 자금 열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김 변호사는 주눅 들지 않는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정을 찾아 다니며 표심을 호소하는 발로 뛰는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풀뿌리 선거 운동이다.

현재 제34지구의 아시안 인구는 20%다. 이중 70%가 한인이다. 선거의 향방은 불과 1만표에 달려 있다. 한인들의 표심이 김 변호사에게 몰린다면 한인타운의 새 역사를 쓰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성우씨는 “다른 연방 하원의원들에게는 많

은 정치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유독 한인타운을 위해 나서서 김 변호사는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한인사회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LA 한인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 참석자는 “아마 현역 고메스의 원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같다”며 씩씩한 입맛을 다졌다.

이날 행사 비용은 용수산 식당의 김광세 대표가 전액 부담했다.

기금 후원 문의 (213) 393-0487 또는 tracy@davidkimforca.com.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한국문화원

한국 문화원 태극기 상설 전시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이 1층 전시실에 ‘태극기 염원을 담다’를 주제로한 한국 태극기 상설 전시공간을 오픈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태극기가 아니다. 2021년 보물로 지정된 ‘대니 태극기’, ‘진관사 소장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중심으로 역사적 순간에 한민족과 함께한 태극기다.

한국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과 공동개설한 공간이다.

문화원 1층 전시실의 일부는 매년

새로운 주제의 상설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해외한인 및 현지인에게 한국역사를 알리는 ‘체험’공간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한 국가유산 태극기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주와 자유를 지향했던 한민족의 염원을 함께 나누고자 전시공간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문의: 전시 담당 태미 조 (323) 936-3014.

▶주소: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태극기 상설 전시 공간 포스터.

문화원 온라인 시낭송회

LA 한국문화원이 ‘2022 온라인 한국어 시낭송 대회’를 개최한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시,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어 및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세종학당(소장 정은미)과 공동으로 기획한 것. 대상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한국어가 모국어 가아니어야 한다.

문화원에 따르면 한국어 자기소개, 한국인 좋아하는 시 100선 추천 시(LA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중 한국어 학습 수준에 맞는 시 한편을 골라 제작한 낭송 영상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기간은 8월 22일(월)부터 9월 25일(일)까지. 입상자로 기획한 것. 대상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한국어가 모국어 가아니어야 한다. 추천서 및 신청서, 규정 등은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https://www.kccla.org/koreanlanguageprogram/cont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R

전기차 너무 비싸 일반인은 ‘그림의 떡’

택스 크레딧도 미국 생산 제품제한 자동차 제작사 고가 상품에만 주력 개솔린 자동차 비해 2만달러 더 비싸 중고차가 새차 보다 비싸게 팔리기도

기후 변화를 늦추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정치권은 전기차를 대안을 내세우지만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 미국인 대부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보도 매체들이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법안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해 중고 전기차에 대한 택스 크레딧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들은 미국 내 광물질 등 생산 원자재 부족으로 실제 적용되는 자동차를 극히 제한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가 비싼 이유는 리튬

과 같은 원료와 배터리 부품 부족, 반도체 부족 때문이다. 돈많은 사람들의 전기차 구입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제작사들은 값싼 자동차보다는 고가 자동차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차고나 드라이브웨이가 없는 중-저소득 수입 가정은 재충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찾기도 어려워 그림의 떡처럼 돼 있다.

이런 전기차 부족현상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들과 배터리 및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현물 공급업체들도 광물 채취와 정제시설을 더 건설해야 하는데 단기간 해결되지는 않는다. 충전소 역시 충분치

않다.

전기차 가격 인상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온실 가스 배출의 27%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한다. 전기차는 개솔린이나 디젤 자동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경제 분석가들은 전기차가 개솔린 자동차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전기차를 구입하면 연료비와 정비 비용 또한 쉽게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제작에 필수인 리튬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전기차 평균 가격은 6만 6,000달러로 14% 올랐다. 일반 새 자동차 평균보다 2만달러가 더 비싸다.

포드 마크-E(Mach-E)와 같은 모델은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잘 팔린다. 또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6만 6,000달러의 모델 Y는 내년 1~4월이 되어서야 출고된다고 밝혔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제작사들은 돈이 쪼들리는 고객들을 위한 저가 상품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졌다.

자동차 분야 컨설팅을 해주는 ‘어센투어’의 의셀 슈미츠 시니어 매니저는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이 부족하면서 더 이상의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드 자동차는 더 이상 소형 전기 픽업트럭 주문을 받지 않는다.

현대는 전기 아이의 5를 4만달러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뉴욕 지역 딜러의 가장 싼 모델은 4만 9,000달러다. 2017년부터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는 일반인들을 위한 전기차로 3만 5,000달러였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 지금은 가장 싼 모델이 4만 7,000달러다.

중고 전기차도 부족

중고 전기차 역시 부족현상이 심하다.

인기 많은 테슬라 Y와 포드 마크-E는 새차 가격보다 수천달러 높게 팔리는 경우도 있다.

LA에 회사를 운영하는 자슈아 버리너는 모델 3 세단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새 테슬라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버리너는 “원하는 전기차 대부분이 비슷



서 지난 4~6월 20만대의 새 전기 자동차를 판매했다. 이 새자동차가 중고 시장에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문제는 모든 새 전기 자동차가 7,500달러 택스 크레딧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IRA법에 따라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터리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질을 사용해 미국에서 제작돼야 한다. 많은 자동차 회사와 광물 공급 회사들이 미국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은 거의 없는 상태다.

칼라 베일로 자동차연구센터 대표는 “현재 원자재 수용 능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이 기준을 충족시킬지 못할 것”이라면서 “테슬라가 매우 근접해 있지만 다른 제작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 생산 전기 자동차는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배터리 기술로 새 배터리 디자인이 나오면 가격 낮은 전기 자동차가 공급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도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새 배터리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포세와 렉서스 같은 고급 승용차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간의 제작사들이 낮은 가격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해치백 세비 볼트는 인센티브 전 가격이 2만 5,600달러로 나와 있다. 북스바겐은 지난달 테네시 차타누가 공장에서 2023년 ID.4 전기 SUV가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격은 3만 7,500달러로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되면 3만달러 선이다.

중국에서 GM과 중국 자동차사 SAIC와 우링의 합작으로 제작된 ‘우링 흥광 미니 EV’는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3를 판매량에서 앞서고 있다. 현지에서 4,500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시간당 최대 속도가 60마일에 100마일 주행거리여서 미국인들 구미에는 맞지 않는다. 또 미국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하다”고 말했다.

이미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버리너는 부인을 위해 두번째 테슬라를 구입했다. 그는 개솔린 자동차를 살 뻔했다면서 “개솔린 차량을 원치 않지만 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살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제정된 IRA법에 따라 중고차 구입자도 최고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중고차 시장은 새차 시장의 거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중고 전기차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2만 5,000달러 이하의 가격이어야 한다. 현재 중고 전기차 판매 중 20%만이 해당된다.

중고차 시장 연구 기구인 ‘리커런트’의 스캇 케이스 대표는 중고차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전기 자동차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3의 중고차는 2018년 모델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새 자동차 구입자는 일반적으로 3~4년에 한번씩 자동차를 교환한다.

케이스 대변인은 새 전기 자동차의 7,500달러 택스 크레딧은 중고차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미국에

Lic#9199095

**소셜연금
메디케어
건강보험
은퇴플랜**

무료

“안내해 드립니다”

김정섭

Wilshire4525@hotmail.com
(323)620-6717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파헤치기

종류는 많은데 헷갈리는 화장품 기초 화장품 종류와 용법 제대로 알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백화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1층에 화장품 색선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제품만 해도 스킨로션(Skin Lotion), 밸런서(Balancer), 토너(Toner), 로션(Lotion), 에멀전(Emulsion), 모이스춰라이저(Moisturizer), 앰플(ample), 에센스(Essence), 세럼(Serum), 크림(Cream) 등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여기에 화운데이션(Foundation)과 파우더(Powder), 콤팩트 파우더(Compact Powder), 아이세도우(Eye Shadow)와 블러셔(Blusher), 립스틱(Lipstick), 립글로우스(Lip Gloss), 립틴트(Lip Tint), 아이라이너(Eye Liner), 칙틴트(Chick Tint) 등 색조 화장품까지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화장을 지워내는 클렌징 제품인 클렌징 로션(Cleansing Lotion)과 워터, 오일, 폼 등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화장품의 종류에 소비자들은 헷갈리기 일쑤인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빼놓지 않고 바르다해도 피부가 모두 흡수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각자의 화장품에 함유된 일부 화학 성분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사용해야 하는 화장품의 종류와 제대로 된 사용법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의 종류와 용법을 자세히 파헤쳐 본다.

토너, 스킨로션

세수하고 가장 먼저 맨얼굴에 바르는 '기초공사'와 같은 단계. 제일 먼저 흔하게 '스킨'이라고 알려져있는 스킨로션, 밸런서, 토닝워터, 토너가 있는데 모두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다.

토너와 토닝워터는 주로 지성피부

를 진정시키고 피부톤을 정돈하는 역할을 하며, 스킨이나 스킨로션, 밸런서는 이후에 사용되는 제품의 흡수를 돕는 '도우미'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토너와 스킨 둘 중에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한가지만 사용하면 충분하다.

앰플, 세럼, 에센스

이 단계에서는 미백이나 주름개선, 모공축소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다. 대부분 고농축의 작은 용량으로 판매되며, 스킨이나 로션 단계에 비해 고가의 제품이 많다.

앰플과 세럼, 에센스 순으로 끈적이는 점성이 있는데, 유분이 많은 로션이나 크림을 먼저 바르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림이나 로션 이전 단계에서 사용해야 한다. 기미나 주름 등 문제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로션, 에멀전, 모이스춰라이저

이 단계는 피부에 수분과 유분을 제공한다. 로션과 에멀전, 모이스춰라이저는 모두 보통 같은 뜻으로, 크림보다 가벼운 점성을 갖고 있다.

지성 피부는 이 단계 혹은 크림 단계 둘 중 하나를 스킵해도 무방하다. 드물게는 크림타입의 모이스춰라이저도 있다.

아이크림

눈가의 피부는 다른 부위와 달리 훨씬 얇고 건조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케어가 필요하다. 기초 단계 중 크림

선블락은 자외선 B차단지수인 SPF와 자외선 A차단지수인 PA지수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앰플, 세럼, 에센스는 미백이나 주름개선, 모공축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대부분 고농축의 작은 용량으로 판매되며, 스킨이나 로션 단계에 비해 고가의 제품이 많다.



최근에는 기초제품만 해도 스킨로션, 밸런서, 토닝워터, 로션, 에멀전, 모이스춰라이저, 에센스, 세럼, 크림 등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 단계에서 아이크림을 발라주어 눈가 건조함과 주름을 방지해준다. 끈적끈적한 에센스나 세럼을 눈가에 많이 바르면 아이크림이 흡수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크림

기초화장의 마지막 단계로,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유분기가 없어 끈적거림이 없는 수분크림부터, 건조한 피부를 잡아주는 영양크림, 또한 피부에 마스크처럼 올리고 수면을 취하는 나이트 크림과 마스크 크림 등이 있다.

크림도 고가의 제품이 많은데 주

름 개선과 리프팅, 미백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크림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다.

선블락

엄밀히 따지면 선블락(Sun Block)은 기초단계와 색조단계 사이라 볼 수 있다. 현대인의 피부노화의 주범이 자외선으로 알려진 만큼 선블락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라 하겠다.

최근에는 바르는 크림형태는 물론 뿌리는 스프레이, 퍼 바르는 스틱, 쿠션팩트 등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 선블락의 SPF지수는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SPF30이면 충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두껍게 바르고, 2~3시간마다 한번씩 덧발라야 제대로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또한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PA지수로 확인하며, +와 ++, +++등급으로 분류된다. 여름철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 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 / 현 공인회계사·슈퍼맘 / 소셜미디어·웰빙기사 다수 게재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
수석 코디네이터

이 원장님과 김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와 응원의 편지

안녕하세요, 이 원장님 그리고 김 선생님.

많은 일이 있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맑음'으로 표시되는 천사의 도시에 살고 있으니 계절의 변화도 느끼기 힘들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선 몇 번이고 날씨가 오락가락 했던 그런 여름이 아니었나 합니다. 또한 유난히 김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많이 했던 여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원장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환자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두 분을 처음 만났던 4년 전 이맘때를 기억합니다. 저희 팀이 클리닉을 방문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부 암은 정기검진으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한인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후 클리닉과 가깝게 일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자주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보니 더 자주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픈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저의 한숨에 병원 간호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김 코디님, 속상하시죠? 근데 저희는 이런 상황에 계신 환자분들 매일 만나요. 매일 속상해요.”

그래도 저는 두 분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전문의와 연결하고, 각종 소셜 서비스를 찾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원장님과 선생님의 환자들은 행운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좋은 병원 좀 소개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두 분을 만난 뒤로는 “좋은 병원”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멋진 병원도 좋겠지만, 더 좋은 병원은 ‘우리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입니다. 복잡한 미국 의료 시스템 안에서 ‘내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주는 병원입니다. 원장님과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병원이요.

올 여름 김 선생님께서는 “미안하지만...”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 한 분을 돕기 위한 각종 경우의 수를 알아보시던 중이셨습니다. 건강 보험도, 소득도, 체류신분도 없는 그 환자를 조금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 부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몇 번이라도 미안함을 택하실 것 같던 목소리였습니다.

“동희씨, 바쁘겠지만... 미안하지만... 이러저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봐줄 수 있을까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 저도 같이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복잡한 미국 의료 시스템을 헤쳐나가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 경험 덕분에 다음에 다른 환자는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전 그 환자 분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일찍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떤 의료진을 만나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엔 알았습니다.

물론, 통통 부은 손으로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몰라 무작정 걸어왔다는 한 할머니를 잠깐 봐주시겠다며 진료실에서 나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던 원장님, 병원의 일반 직원들을 독려한 덕분에 젊은 직원들이 간호학과에 합격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게 됐다고 기뻐하시던 선생님의 모습도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분이 한인사회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을 이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 마음 졸였습니다. 한인타운에 불어닥친 개발 붐 때문에 48년간 명맥을 이어온 커뮤니티 클리닉을 잃는 것은 아닌지 조마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이 아플 때 갈 곳이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이전을 결정하셨다니 일단 한시름 놓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찾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부디 딱 맞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새 간판이 걸리는 날, 그 아래에서 밝게 웃으시는 이 원장님과 김 선생님을 다시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장님, 김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걸음, 축복합니다. 두 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김코디 올림.

김동희

현재 미국병원 암센터 커뮤니티 헬스 수석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 전 미주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자. '미국엄마의 힘' 저자. 연락처 (310) 423-7410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에서
추석 명절을 즐기시고
행운과 번영을 한가득 받아 가세요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플레이하세요

877.711.2WIN • PECHANGA.COM
45000 PECHANGA PARKWAY
I-15 • TEMECULA



도박은 21세 이상만 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800.GAMBLER. 모든 권리는 본사에게 있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